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진동하는 해님 아래서, 회개와 눈물로 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다고 대담하면서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남자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
기셔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간절하게 붙들어서 주께 온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따르신 자들이 교회로 돌아
오는 영감이 일어나게 하고 마지않고 주님을 믿을 영혼을
개조시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
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이사야 25장 1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4호 2013년 10월 1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멘토와 의미 있는 관계형성 필수

바나리서치, 밀레니엄들 교회 오게 하는 5가지 원리 소개

현재 미국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을 향한 교회의 역할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레이첼 에반스(32)라는 기독교인 작가가 지난달 27일, "왜 젊은이들(밀레니엄)은 교회를 떠나는가?(Why millennials are leaving the church)"란 제목으로 케이블뉴스채널 CNN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앙 칼럼란에 쓴 글 때문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20만여 명이 이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렀고, 트위터에서도 3000명 이상이 퍼날랐다. CNN 홈페이지에는 이례적으로 9,069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따라서 워싱턴포스트(WP)와 허핑턴포스트, 포क्स뉴스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큰 논쟁을 촉박했다"고 앞다퉈 소개하고 유명 작가와 목회자를 끌어들이며 논쟁에 뛰어들었다.

레이첼은 "20대를 끌어들이려면 최신의 음악과 카페, 인터넷 홈

페이지를 구비하고 목사가 청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많다"며 "카페라떼 한 잔 건네준다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쿨하지 않아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떠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에 남거나 떠나는 밀레니엄 세대들과 직접 설문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지혜, 즉 그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5가지 원리들을 시기적절하게 대거 방출해(5 Reasons Millennials Stay Connected to Church) 화제가 되고 있다.

바나리서치의 이번 설문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로, 18-29세 현재 교회에 다니거나 다니지 않는 1,296명의 밀레니엄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인터넷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오차율은 +/-2.7, 신뢰도 95%.

레이첼의 글은 한마디로 밀레니엄들과 기존 교회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짚어 준다.

현재 1984년에서 2001년에 태어난 이들 중 59%가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더 이상 제도화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44%에서 52%로 증가되고 있기에, 교회공동체는 반드시 밀레니엄들을 예수를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레이첼의 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밀레니엄들은 비록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 가정과 친구들과, 성경 읽기, 자녀를 가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오히려 교회공동체에 남아 있는 밀레니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교회를 떠나간 밀레니엄들을 교회공동체에 다시 연결할 수 있는 5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 의미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밀레니엄 중 20%만이 현재 교회에 남아 있다. 이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놀라운 사실



밀레니엄세대들은 교회는 떠났지만 기도, 성경읽기 등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위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교회 어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남아 있는 밀

레니엄들은 관계에 목말라한다는 사실이 다.

<3면으로 계속>



2면

비전과 전략에 앞서 인격을 갖춰라!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16면

경건주의(Pietism)와 현대 선교에 대한 소고(1)
박시경 목사(그레이스신학교 교수)

AB1266법안폐지청원 서명운동 동참을!

남가주교협 등 교계단체 기자회견 열고 적극 호소



남가주교협, OC교협, 자마 등 교계단체들은 AB1266 법안폐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다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와 옐로스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경영 목사) 그리고 자마(대표 김춘근 장로) 등 교계단체들은 지난 8일 AB1266 법안 폐지청원을 위한 주민투표 캠페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AB1266법안은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남녀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장을 남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이다. 즉 레코드 상에 기록된 성적체성 즉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과 상관없이 그날그날 자신이 느끼는 성적체성에 의해 자유롭게 교내 라커룸, 샤워장,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부터 만 16세 남아아이가 오늘은 자신의 성적체성이 여성이므로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탈의실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하루 종일 있어도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입법기관에 의해 통과됐고 주지사 제리 브라운의 서명으로 인해 이미 법률화 됐다.

AB1266법안이 시행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성적체성의 혼돈은 물론, 학교 안에서 성폭행, 심대들이 받게 되는 정신질환, 심리적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 성폭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과 늘어나는 낙태 등등 비인간적인 일들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자행될 수 있다. 이런 사악한 일들이 법적이 학교에 침투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진유철 남가주교회회장은 "AB1266법안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며 도덕적, 윤리적, 영적타락을 가속화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폐지시키는 것은 단지 크리스천들만의 문제가 아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땅의 모든 가정을 살려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B1266 법안 폐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법안폐지 청원은 지난 SB48 저지 서명운동 등 친동성애 법안폐지 서명운동 때와 같은 50만5천표의 서명이 필요하다. 11월10일까지 50만5천표의 서명이 모여야 AB1266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미 지난 한 달간 갈보리채플을 중심으로 한 미 주류교계가 힘을 모아 30만5천명의 서명이 모아졌다.

남가주교회관계자는 "이번 서명 역시 법안통과를 위해 매우 까다로운 조건 속에 진행된다. 지난 PRE법안 때는 60만표 이상 서명이 됐지만 재검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서명조건에 맞지 않는 용지가 다수 발견돼 고배를 마신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서명하여 이 말도 안되는 AB1266법안이 폐지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AB1266법안 폐지 청원을 위한 서명은 매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우선 서명용지의 규격은 원본의 규격과 동일해야 한다. 또한 서명자들은 지난 SB48법안 저지운동 때와 같이 시민권자 유권자들이어야 한다. 서명은 검정 또는 청색 잉크만 사용해야 하며 한 서명용지에 동일한 카운티 거주자만이 해야 한다.

서명할 때 칸을 침범하면 안되며 유권자 등록에 기재된 이름(면허증/여권에 있는 이름)만 서명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 등록양식에 어떻게 기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풀네임을 사용하여 청원서에 서명해야 한다. 주소는 유권자 등록양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해야 하며 청원에 기재되는 주소는 P.O. Box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거주지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박준호 기자)

2013 제1회
LA은혜교회 성가합창

제스프리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하모니"

Sunday, October 27, 2013 6:00PM

WELCOME

Y.T. Choi
만물상

L.A. GRACE CHURCH
4975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7
(213) 435-0073

MUSIC@LAGRACECHURCH.COM

찬양을 사랑하는자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예/ 배/ 안/ 내			
주일1부예배	7:45AM	주일2부예배	9:00AM
주일3부예배	11:00AM	주일4부예배	12:30PM(영어)
주일학교예배	11:00AM	새벽예배	5:30AM
수요일예배	8:00PM	금요일찬양예배	8:00PM
K.M.예배	1:30PM		

온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행 1:8)



시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양춘길 목사
(뉴저지 웰교회교회)

역사에 우연이나 요행은 없습니다. 자연은 정직합니다. 콩 심은 곳에서 콩이 나고 팥 심은 곳에서 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몇 가지 측면에서 되새겨 봅니다.

첫째,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은 전에 내가 심어 놓은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변변치 못한 것이라고 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좋은 것이 내가 심었던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전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내가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넷째, 오늘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훗날 좋은 것을 나와 내 후손들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여김이 없다고 해도 인간의 삶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짓과 손을 잡으면서도 잘되기를 바라고 불의와 타협하면서도 의로운 결과가 나타나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6:7, 8).

그러나 또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라도 참고 견디다가 면서 복음을 심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화평을 심을 때, 그 열매 역시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추수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심기어 지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비전과 전략에 앞서 인격을 갖춰라!

리더십저널, 오브리 맬퍼스 교수의 신뢰감 형성하는 8가지 요소 소개

델러스신학대학원의 목회학교수이자 목회상담과 지도자훈련을 전담하는 맬퍼스 그룹(The Malphurs Group)의 총재인 오브리 맬퍼스는 “리더를 믿지 않으면 리더가 하는 말도 믿지 않는다”고 제임스 쿠퍼스와 배리 포스너가 말한 리더십의 첫 번째 원칙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리더는 신뢰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오브리 맬퍼스는 ‘신뢰를 쌓기에 필요한 8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1. 인격을 닦아라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야말로 그리스도인 리더의 밑바탕이고 가장 근본적인 자격 요건이다. 올바른 인격은 모든 대인관계의 기반이 된다. 사역에 대해 품고 있는 비전, 전략적 계획, 심지어 성경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도 인격만큼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거창한 목회 구상과 사명 선언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신뢰 형성에 중요한 성품들이 나온다. 예를 들자면 약속을 지키는 것(민30:1-2), 참된 말을 하는 것(잠24:26), 진실된 것(마6:1-18), 실패의 책임을 지는 것(잠28:13) 등이 있다. 리더가 되기 위해 책상 위의 연필만 뽐족하게 갈면 안 된다. 인격을 갈고 닦아야 한다(딤후4:8).



인성은 세대가 많아지면서 기성세대를 대체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인들은 목회자들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다. 난관에 부딪혀도 신념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욕을 불어넣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사고를 바로잡는 데서 용기가 드러난다. 그에 대한 대사는 사람들의 전적인 신뢰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7. 돌봄의 자세를 지녀라

세심히 돌봄 줄 아는 목회자는 교인들이 자연히 좋아하고 신뢰하게 된다. 돌봄이란 리더가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행복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관심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듯 리더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출4:31).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돌봄이다. 그러한 리더를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다.

8. 정서적 안정을 찾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능함과 정서적 안정
분명한 방향성, 솔직함, 설득력, 용기, 돌봄

2. 유능함을 갖추어라

유능함이란 무엇일까? 유능함은 어떤 상황에서 일을 잘 처리해내는 능력이다. 유능한 그리스도인 리더는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은사, 지식, 기술을 갖추고 과거와 현재의 목회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동시에 유능함(목회사역을 해내는 기술과 지식)과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유능함은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마25:14-20).

3.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헌신하려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뿐 아니라 교회의 명확한 방향성도 추구한다. 교회의 방향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교회의 사명(국내외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성숙한 제자로 양육하는 일)이고 둘째는 목표와 비전(교회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신 있는 그림)이다. 교인들은 목회의 방향이 분명한 리더를 따르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 주어라

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단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리더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사람들은 그 리더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교회 리더는 사람들의 사적인 비밀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교인들이 교회 일을 궁금해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5. 설득력을 키워라

스티븐 번스타인과 앤소니 스미스는 설득이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설득력은 열정과 헌신이라는 2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것이다. 우선 열정적인 리더에게서는 사람들이 사로잡는 활력, 생동감, 매력력이 빠져 나온다(행20:22-24). 그리고 헌신은 리더가 의식적이며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목표 달성을 위해 쏟아 붓는 것을 말한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그 일이 중요하고 언젠가 그 일을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6. 용기를 가져라

오늘날 정신없이 급변하는 세상은 나름대로 의욕이 있는 리더들 앞에 셀 수 없는 장애물이 가로놓이게 한다. 교인들 가운데는 점점 냉소적

아마도 대부분의 목회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리더의 정서적인 면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남성들은 감정이나 정서 같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자다운은 곧 강인함이고, 강인한 남자라면 분노 이외에 다른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 심어놓은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이다.

리더가 어떤 분위기에 따라 교회나 사역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리더를 신뢰하며, 의욕적으로 배우게 되고, 모험도 감수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감이 리더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는 점이다. 건강한 정서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리더가 감정 발달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서 밝고 활기찬 사역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안내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유능하고 창의력을 갖춘 실력 있는 리더로 가는 첩경"

Midwest Leadership Program 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지성과 인성, 영성과 리더십을 통한 소통의 공간이며 비전을 세워갈 동지를 만나 네트워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능력을 향상 시키며 리더로서의 학문적 배경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최고의 과정 입니다

본교소개

1.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여개국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 www.midwest.edu)
2.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 프로그램.
3. 본교는 전 세계 리더십분야 교수들과 CEO로 구성된 국제리더십협회(ILA) 회원대학교로서 전세계 리더들의 네트워크에 동참할 수 있음.

과정 1. 리더십 박사 학위과정, DCL 48 Credit Hours
2.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 관계없음)
2. 각 전문분야 종사자 (영관급 이상의 장교, CEO, 경영인, 학교장,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이상, 부장급 경력 5년 이상인자, 목사, 선교사, 장로, 단체인장, 여성전문인, 체육지도자, 전문분야 경력 15년 이상)
3. 리더십 박사 연구과정- 전문분야 경력 10년 이상자, 학력제한 없음

* 2013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절차

1. 직장파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On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위취득 가능.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 학위 취득 가능.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 campus courses - SEVIS I-20

Apply Now!
E-mail to Midwest

문의 및 상담: 리더십박사과정 코디네이터 손동원교수 covenant@unitel.co.kr

Midwest 동문

강병도 박사 (장신대학교 설립자, 전. 총장)
구두희 박사 (전. 숙대 용체 학장)
권순용 박사 (보이스 대표)
김종원 박사 (Midwest 총동맹회장)
김남원 박사 (광운대 교수, 한국중소기업협회장)
김두원 박사 (영성 총회장, 안양 중영교회)
김영필 박사 (가나안 통합학교 교장)
김소영 박사 (한예총연합회장, 대전대 교수)
노병진 박사 (전. 대원, 전. 나사렛대 부총장)
박승준 박사 (한울고 교장, 전. 로타리총재)
박종호 박사 (한국유희보안센터 대표)
박은진 박사 (대원대학교 교수, KWMC 임원)
사정욱 박사 (전. 중앙유대 학장, 교회융합학회 이사장)
서성욱 박사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영문용 박사 (GJU 명예총장, 전. 기교협대표)
오세영 박사 (성신대 교수, 전. 경명대학원장)
유호준 박사 (미국립신학교, KWMC 임원)
윤영환 박사 (전. 중앙유대 학장, 교회융합학회 이사장)
홍정기 박사 (예음 총장, 전. 예장(개) 총회장)
이상진 박사 (KWMC 발행위원장)
이상혁 박사 (안양 성령교회 이사장)
이영석 박사 (대원대학교, 전. 나사렛대학교 단과대학장)
이태원 박사 (전. 영동고등학교 교장)
임용아 박사 (배재대학교 유대 교수)
정근기 박사 (매경백석 증권협회장)
정근우 박사 (전. 과거재정관, 전. 호서대, 명지대총장)
정종원 박사 (전. 고신인문사 사장, 전. 기독교보 사장)
정영민 박사 (전. 영동고등학교 교장)
최영희 박사 (전. 순복음신학교학장)
최병두 박사 (전. 매경종합 총회장)
최성규 박사 (전. 대한사회복지협회 회장)
최일식 박사 (Kinnnet 사무총장, KWMC 사무총장)
한도수 박사 (전. 바울신학교, 보리장 선교사)
황영희 박사 (안양 성령교회 회장)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 (636) 327-4645, 070-8690-2662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시켜라!

바나리서치, 밀레니엄들 교회 오게 하는 5가지 원리 소개

(1면에서 계속)

결국 교회의 다른 성인들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목회자 외에 어른들을 멘토로 가지고 있는 밀레니엄들은 교회에서 오히려 더욱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에 심대 시절부터 어른들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밀레니엄들 중 70%, 그리고 멘토처럼 성장기를 보내는 이들에게 어른이 없는 경우 90%가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관계형성"을 위한 장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밀레니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교회공동체는 반드시 이해하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체질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그래야만 밀레니엄 중 35%는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관계를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나친 과잉보호나 독선적인 지시로만 진행되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밀레니엄들의 통전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과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리더로서 사역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라

밀레니엄들은 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밀레니엄들은 당장 오늘이 중요하지, 내일로 사역을 미루지 않는다. 이들은 교회가 너무 계층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당

5.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진전시켜라

밀레니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예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렇다. 교회공동체는 예수는 몸일진대, 예수는 없고 그 분의 흔적과 기억만이 있다.

그러나 교회에 남아 있는 밀레니엄들은 개인적,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치 자신의 친구처럼 생생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68%).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밀레니엄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고 있다(25%). 동일한 맥락에서, 성경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실제적인 도움과 지혜를

10년래 교회 떠나는 비율 44%에서 52%로 증가 리더로서 사역할 여건과 기회 제공 직업에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 알게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진전시켜야

형성할 수 없다"고 떠나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할 수 있게 된다.

2. 문화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영적인 세계관 즉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밀레니엄들을 구비시켜 오늘날 미국 문화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야 한다.

실제로,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밀레니엄들은 "어떻게 하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교회에서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46%), 그렇지 않은 밀레니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20%). 또한 교회에서 열심을 보이고 있는 밀레니엄들은 "인생에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교회로 통해서 배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무려 그렇지 않은 밀레니엄에 비해서 4배 즉 45% vs. 12%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항상 세상은 복잡하고 유혹의 대상이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밀레니엄들의 삶에서 교회와 신앙이 항상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장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불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당장 지금 여기에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결국 밀레니엄들이 자신들의 은사나 사역을 발견하게 해 당장 시작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들에게는 절대로 장로들이나 집사 다음에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된다. 가장 간단하게 이들을 사역에 뛰어 들게 할 수 있는 영역은 교회의 디지털 영역, 즉 인터넷과 SNS를 통한 사역의 기회다.

4. 소명과 직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점을 알게 하라

교회와 밀레니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직업과 소명에 대한 교육이다. 자신의 은사나 적성, 전공이 하나님이나 나를 부르시는 소명에 관계가 있다고 응답한 밀레니엄들은 그렇지 않은 밀레니엄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이다(45% vs. 17%).

또한 "성경이 나로 하여금 내 직업이나 경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한 밀레니엄들은 거의 4배 이상이 교회에 남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29% vs. 7%). 결국 교회는 밀레니엄들에게 소명과 직업을 통한 제자도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배우는 밀레니엄들은 그렇지 않은 때에 비해 교회에 남아 있다(65% vs. 17%).

하나님 말씀에서 권위를 찾는 밀레니엄들 즉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삶의 목적을 찾는 밀레니엄들은 교회에서 남아 있게 된다.

결론으로, 밀레니엄들은 교회에 예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관계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소명이나 직업에 있어서 그리고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공백"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이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다시금 정확하게 재조명하고 짚어주게 되면, 이들은 오히려 과거 신앙생활 할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문헌 진리에 굴복하게 된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른들이 바로 눈앞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순례자들에게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들의 친구이자 멘토가 돼준다면, 밀레니엄들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

교회(박성규 목사)와 토렌스 한남체인, LA 한인타운 내 그리스도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명운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문외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323-735-3111)로 하면 된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시편'은혜 나누기

허상에 놀라지 말고 실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시 103편)

시간 안에서 바라보는 인생이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통하여 말씀하십시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는 물질세계를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시간이란 것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시간은 정체가 없고 항상 움직입니다. 그 시간의 움직임에 따라 들의 풀이 싹이 나고 자라고 시들어 집니다. 또 시간이 움직임에 따라서 풀이 자라다가 꽃 한 송이를 피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어져서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 역시 그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작이 있는 가하면 마감이 있고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왕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 쇠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그것은 시간 속에서 사는 제한된 인생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의 인생은 잠깐 꿈을 꾸는 것같이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삶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 안의 만족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줄 알았는데 허무함은 그것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요 시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벗어나는 영원에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 안에서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사는 삶은 그림자와 같아서 현재 보이지만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음과 같이 모든 것이 변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고도 헛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함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재 시간 안에 살도록 하신 뜻이 있습니다.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을 알아야 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은 시간 안에서의 것이었기에 지금도 살고 있는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꿈에서 배불리 먹었는지라도 꿈을 깨면 그 배부름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영원을 바라보면서 히11장의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같이 영원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심은 시간 안에서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그 욕심에 속아서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생에서 나오는 생명의 생각을 따라 살고, 생명의 생각을 품고 살고,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삶은 영원히 영광의 삶이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림자는 허상입니다. 시간 안에서 허상입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 속에서 노쇠하고 사라지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와 정직함을 나타내리'라(시92:14-15)는 말씀과 같이 몸과 같이 사라지지 않는 영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저런 문제, 괴로운 것, 좋은 것, 고통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림자를 보고 삶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살지 말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 그 삶이 영원히 가치가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전체를 통해 시편 기자는 여러 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찬양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홀로 만들어진 이 몸을 벗어버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때때로 괴롭히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육신의 것을 다 벗어 버리고 영원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허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복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영원한 실상을 바라보고 누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인생을 삽시다.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 영원하고 그 누림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면에서 계속)

서명자들은 청원서에 한번만 서명해야 하며, 서명시 실수하게 되면 박스에 두 라인을 가로로 긋고 다음 박스부터 다시 서명하면 된다. 서명운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tvnext.org에 들어가면 되며, 서명용

지 역시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거나 남가주교협 사무실에 비치된 서명용지를 사용하면 된다.

한편 한인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매우 토요일부터 남가주 각 지역에 부스를 설치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우선 주님세운

교회(박성규 목사)와 토렌스 한남체인, LA 한인타운 내 그리스도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명운동을 하게 된다.

자세한 문외는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323-735-3111)로 하면 된다.



밀알장애인지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소향

과 함께하는

밀알의밤

특별출연: American Idol 한희준

ONE & ONLY

Hope

Eph 4:2-4

OCT. 25 (Fri) 7:30pm
ANC온누리교회 / www.anconnuri.com
10000 Foothill Bl., Lake View Terrace, CA 91342

OCT. 26 (Sat) 7:00pm
남가주사랑의교회 / www.sarang.com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OCT. 27 (Sun) 7:00pm
베델한인교회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밀알장애인지학 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수혜대상: 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

자격: 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복지생: 0명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중 선발)

꿈나무장학생: 00명

장학금액: 장애인지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신청마감: 2013년 11월 15일(금)

발표: 2013년 12월 10일(화) - 개별통보

신청처: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Tel: 714-522-4599
smilal@milalmission.com

행사수익금 전액은 2014년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96,600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후원: **FOREVER 21** & **Ace Engineering, Inc.**

Ticket Donation: \$10
문의: 남가주밀알선교단
www.MilalMission.com / 714-522-4599

예매처: 잇딜 hotdeal.koreadaily.com 213-368-9828 or 213-784-4628
정음사(코리아타운올라자 내) 213-387-6767 / Joy 기독교서점 323-766-8793 / 두란노서원 213-382-5400 / 알라딘서점(울림빌딩) 213-739-8107, 로데오갤러리점 213-380-8885, 풀러튼점 714-523-7060, 가든그로브점 714-530-8484 / 도르가기독교책화점 714-636-7430 / 북음사 562-865-4949 / 윌리엄스점 310-325-9191 / 에일서점 626-912-2225 / 베델서점 949-854-9191

자세한 사항은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ilalmission.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포 용

미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근간인 소셜시큐리티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제도에 강력히 반대했을 뿐 아니라 프랭클린을 마르크스나 레닌과 같은 공산

주의자로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대항하는 루즈벨트는 자신이 물러난다 하더라도 결코 복지정책은 없앨 수 없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우리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제도인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또 하나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입법안 즉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정부가 폐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공화당의 초강경 보수파인 티파티 계열의 소장 하원의원들과 존 베너 하원의장이 오바마 케어 철폐를 요구하며 내년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아 초래된 사태입니다. 온 국민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특별한 협상카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물러나거나 실패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의 타협이나 양보할 이유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닌 듯 보입니다. 여기서 밀리던 공화당 강경파에 계속 발목을 잡히는 데다, 지지층도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를 주도하는 티

파티 계열 의원들도 물러설 처지가 아닙니다. 현재 그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다음의 권력을 위해서라도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들 아닐까 합니다. 공무원들이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가져야 했고 공원 공공 오피스를 닫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겨우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안심하던 서민들의 모습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는 17일까지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상환선을 올려주지 않으면 국가부도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전문가의 말입니다. 혹시 국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의 저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미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책을 통해 국가가 실패하지 않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마야의 도시국가, 중세 베네치아, 구소련,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미국 등 세계의 역사를 낱알이 훑은 결과 저자들이 내놓은 결론은 불평등의 역사적 기원은 첫째도 제도, 둘째도 제도, 셋째도 제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인 정치·경제 제도가 발전과 번영을 불러온다고 주장합니다.

17세기의 영국은 왕실의 힘이 스페인에 비해 연약하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으로는 스페인은 식민지 착취를 통해 왕실의 힘을 극대화하였고 그들이 깃발을 꽂은 남미에서는 착취적 경제제도가 뿌리를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포용

적 제도가 발달하게 됨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남미와 북미는 같은 미주 대륙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수준에 있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 이민온 동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의료혜택입니다. 물론 65세가 넘어 메디케어 혜택을 받거나 전혀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혹시 중병이 들면 어쩌하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이곳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하기 때문에 더욱 병원 문턱은 높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을 위해 '오바마 케어'는 굶주스스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의회가 깊은 '포용'을 갖고 어려운 서민을 끌어안고 더불어 살아가는 미주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푸 / 른 / 초 / 장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기도는 영혼의 호흡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은 생명유지의 필수조건이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신앙이 병들었다 혹은 죽은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생명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치명적인 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생명력 있는 참된 신앙은 일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부르짖음이라는 길

간혹, 걱정과 염려가 지나치면, 혀 좌우가 헐어지고 혀 안쪽에는 바늘같은 것이 돋고 입안이 바짝 바짝 마르게 되고 마침내 밥맛도 없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혀에서부터 제일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다시 입을 열어 혀를 사용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영혼의 불안과 염려를 혀로 토설케 하실 때, 마침내 입안의 혀를 움직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몸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

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33:3)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있게 임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부르짖음이 살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 제물(Living Sacrifice)과 예배의 열납

기도 가운데 우리영혼이 살아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까? 우리의 예배의 온전함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것은 산제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제사는 살아있는 생축의 제물(Living Sacrifice)'이 될 때 열납하심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생축-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22절에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호흡이 멈춰지는 것은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영혼의 호흡임을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산 제물로 열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은 신체장기의 작용으로 움직여질지는 몰라도 영혼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영혼의 호흡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함으로써, 내 속에 더러운 것과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이 입술의 기도를 통해 계속 밖으로 나오

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이 산 제물(Living Sacrifice)로 흠향하시고 사용해주셨던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의 특징은 쉬지 않는 한결같은 호흡입니다. 우리 한인교회에 허락하신 고정적인 기도시간의 축복이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는 가장 고정적인 시간에 영혼의 호흡이 가능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전날 밤부터 의식하고/강조하고/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습관적으로 새벽미명에 기도하라 가신 것'을 보면 주님께 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 때에 의식적으로 고정적인 시간에 기도하기를 애쓰셨음을 알게 합니다.

물론 그가 아침 일찍 기도하러 가신 것에 대해서는 두 곳에서(막 1:35/눅4:42) 언급하셨지만, 이 두

다니엘에게 하루 세 번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의 기도시간이 확실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니엘처럼, 성도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자신의 고정적인 기도시간이 분명한 분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봅니다. 목회와 영매가 풍성한 어느 목사님에게 겸손히 그 비결을 물어보았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30년 동안 새벽무릎을 꿇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만교회도 새벽을 깨우며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봅니다. 비록, 이른비의 축복이 없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반드시 낮은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을 넘어서는 한결같은 기도

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한결같은 기도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절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감사했다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어려움 중에 드린 기도는 참된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축복의 맛을 본 다음에 드리는 것도 물론 감사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앙의 감사는, '삶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데 - 나의 계획은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쭙히셨던 그것이 나의 인생에 최고의 좋은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는 바로 그런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감사가 온전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정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긴박감이 흐릅니다. 원수들과 사방의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다니엘을 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상황에 자신을 매지 아니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막광야같은 이민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호흡을 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기도의 호흡을 쉬지 않고 이어가며,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열납하시고 사용하시는 믿음의 귀한 권속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은 죽음의 상황앞에서도 환경을 넘어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에 담대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열납되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나라와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앞에 늘 무릎꿇기를 각오하고 사는 삶

하루에 세 번 무릎꿇은 다니엘

한결같은 기도의 삶

(다니엘 6:10)

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온전한 제물로 열납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영혼의 호흡자-다니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는 하루에 세 번씩, 상황에 상관없이 영혼의 호흡을 쉬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을 쉬듯, 무시로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

번의 기록을 근거로 예수님이 3년 동안 딱 두 번만 새벽기도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365일 주님의 일기책이 아니라 것과 마가복음 1장이 주님의 하루일과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소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교회의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삶의 내용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세 번 무릎꿇은 다니엘

제14회 LA기윤실 건강교회포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한인교회의 사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2013년 10월 17일 (목) 오후 7시 ~ 9시 30분
- 주제발표: 배천찬 목사 (워싱턴 주 예수교회)
- 패널토론: 김동일 목사 (은혜의방주교회) 유용석 장로 (LA기윤실)
- 토론사회: 박상진 간사 (LA기윤실)
- 주최 및 문의: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13-387-1207, www.lacem.org)
- 장 소: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 (313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 이 날, 제 2회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제2회 LA기윤실 사회봉사상 수상단체

-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
- 부모님선교회 (주도진 목사)
- 빛나라선교회 (문정임 목사)

제5회

LA 여성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LOS ANGELES WOMEN'S MISSION CHORUS
The 5th Annual Concert

지휘 / 최왕성
반주 / 박명선



특별출연 배재코랄
Soprano 조현주 · Alto 우성영

October 20, Sunday, 2013, 7:00pm
월서연합감리교회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4350 Wilshire Bl., Los Angeles, CA 90010

주최 LA여성선교합창단 후원 남가주음악협회 · 남가주교회음악협회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성경의 정확성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증되고 있다. 작년 이후의 최근의 고고학적인 발굴을 정리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비추어주시는 하이라이트를 재삼 확인한다.

최근에 신약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유골함이 발굴되었다. 199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2마일 남쪽에서 공원 공사를 하던 건설인부가 우연히 무덤동굴을 발견하고 유골함을 발견했다. 그 유골함에 '요셉 가야바의 아들...'이라고 새겨 있었다. 이 유골함이 과연 예수님을 심문했던 그 대제사장 가야바일까? 이 무덤은 비슷한 무덤들이 많이 발굴된 지역에 있었다. 무덤 안에는 다른 12여개의 대리석 유골함이 함께 발굴됐다. 납골당은 1세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유골함은 시체가 부식된 후에 뼈들을 담아서 보관하는

야바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 2장에서 그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단순히 가야바가 아니라 '요셉 가야바' 라고 증거했다. 같은 책 4장에서는 가야바를 요셉이라고 부른다. 성경의 역사와 정확하게 맞는다. 학자들의 견해도 가야바의 유골함으로 결론짓는다.

또한 주전 700년경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이 발견된 그릇조각들이 다윗 성에서 발굴되었다. 기온샘 부근에서 깨어진 토기들, 등잔들, 토기 입상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진 이름들은 성경과 연결 짓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그중 하나를 예들 들면 대하20:14절에 나오는 브나야의 아들 스가라다. 압문과 모압과 전쟁하러나가던 여호사밧 왕 앞에서 예언했던 예언자다. 이스라엘 고고학자인 Joe Uziel 와 Nahshon Zanton 팀이 발굴했다. 그릇의 연도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유다 마

은 사람들이 예수, 야고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다.

금년 9월 성전산 아래 오벨의 보물들이 발굴되었다. Dr. Eilat Mazar의 발굴팀은 예루살렘의 오벨성 지역에서 그야말로 생애 최대의 보물들을 발견했다. 오벨은 솔로몬 성전시대부터 다윗성과 성전산 사이를 부르는 이름이다. 그 뜻은 높은 지대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주전 8세기경 요담이 건축을 했다(대하27:3). 물론 오벨의 존재는 그 이전 시대부터 존재했다. 오펜 발굴작업은 고고학자들의 꿈이 성취되는 사건이었다. 놀랍게도 엄청난 양의 금을 발굴한 것이다. 주전 7세기 이전의 것인 일곱 개의 가치를 가진 금촉대, 양나팔에 붙이는 쇼파 금메달, 울퉁 두루마리에 다는 금장식품들을 발견했다. 그 외에도 36개의 금동전과 금은 장식품들을 발굴했다. 그리고 6세기의 비잔틴시대의 유물들도 발굴했다. 또 금 귀걸이, 은으로 만든 인고들, 그 외에 여러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또한 작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알파벳 문자비문도 발굴되었다.

사사시대의 사사이었던 삼손에 대한 발굴도 활발하다. 특히 삼손의 얼굴로 추정되는 그림이 발굴되었다.

이다. 가나안 정복이전에도 존재했던 고성 중에 하나이다. 1950년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발굴작업이 진행되었다. 하늘은 무려 200에이커 이상의 거대한 성이다.

최근 텔 하술에서 불에 타고 그 울린 밀을 담은 항아리들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술을 점령할 때 불태웠다고 되어있다(수11:10-13). 또한 불에 탄 지층이 발굴되었다. 발견된 밀을 탄소14 검사를 하였더니 연도가 약 3400년 전의 밀로 확인되었다. 가나안 정복시기와 맞는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확인하는 또 다른 획기적인 발굴이다. 주변에 기름이 담겨 있던 항아리도 발굴되었다. 현장은 타다가 남은 밀 뿐 아니라 타다가 남은 콩, 내려앉은 천장, 벽돌, 열로 인해서 굳어진 벽돌, 벽에 남겨진 감람이들, 불탄 지층들을 통해서 당시의 전쟁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발굴된 대량의 밀 항아리들도 역시 전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금년 7월에는 하술에서 스프링크 상의 앞발 부분이 잘린 채로 발굴되었다. 주전 2500년경 기자에 피라밋을 세운 이집트의 왕 Menkaure시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2세들을 지도하는 EM 담당목사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2세들이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장차 훌륭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는데 어떤 면을 특별히 강조해야 할까요?
-LA에서 Joshua Lee 목사

A: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평소애 느끼고 2세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안에서 영통한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네 분수를 알아라"란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발에 있어서는 결코 네 분수를 알면 안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분수에 넘치는 목표를 세우고 몸부림을 칠 때 새로운 차원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큼직하게 믿어라 성공의 크기는 꿈에 달려있다."

다저스의 1선발 클레이튼 커크는 알고 보니 훌륭한 크리스천이라

주 안에서 비전 갖고 전문성을 키우라

고 합니다. 하이랜드 파크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하루는 선생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학생, 너 꿈이 뭐냐?" "메이저 리그 선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커크에게 "100만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선생님의 말을 마음깊이 간직했습니다.

결국 클레이튼 커크는 좌완투수로 20살의 나이에 메이저리그 최연소의 나이로 최고의 방어율에 성공했습니다. 탈삼진 1위를 했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받았습니. 그의 야구 실력은 연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순간 주님주시는 지혜로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 전문성 즉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이던 1943년 가을의 어느 날 공연을 앞두고 뉴욕필하모닉의 세계적인 지휘자인 브루노 발터가 갑자기 아파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부지휘자가 대신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이 젊은 지휘자는 실로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고 청중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콘서트는 전국에 방영되었고 비평가들은 열광하면서 새로운 천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대타로 나왔다가 스타가 된 이 부지휘자가 바로 20세기의 최고 지휘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레너드 번스타인(Lenord Bernstein)입니다.

이 동화와 같은 스토리는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운이 좋아 성공한 것일까? 아닙니다. 평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실력을 준비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실력을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발휘할 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의 흥왕왕 헝크 아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다른 선수들에게서는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공이 커브인지 직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이 수박처럼 크게 보인다. 이처럼 연습의 힘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연습은 마법을 만듭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과 마법의 진짜 비밀은 "피나는 연습"에 있습니다. 자기 분야의 최고 실력자가 되기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강조하십시오.

성서 고고학이 증명하는 성경의 역사성 (2)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방식으로 1년 후에 뼈들을 주려서 유골함에 넣고 선조의 유골함 옆에 놓여지게 된다.

이 유골을 조사해본 결과 나이는 60세쯤에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골함이 매우 아름답고 정교한 디자인으로 장식된 것은 이 유골이 매우 중요한 사람의 것임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 두 사람이 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이었다. 로마군이 그를 축출했지만 그는 막후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했었다. 그의 다섯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계승했다. 안나스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다(눅3:2).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가야바보다 먼저 안나스에게 보냈었다(요18). 안나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요18:24).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현재 대제사장이었다(주후18-36).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성을 예언했다(요11:49-53).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했다(마26:3-4).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판결했다(마26:63-66).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냈다(요18:28-32).

1세기 유대역사가 요세푸스는 Antiquities of the Jew 저서에서 가

말릭 왕이었던 시드기아왕 시대에 제작되었다고 추정했다. 새겨진 이름은 불로 도기를 굽기 전에 새겨진 것이었다.

작년 5월에 비슷한 시대 솔로몬 성전시대 사용되었던 마타나후 인장이 예루살렘에서 발굴되었다. 주전 8-6세기경의 인장은 '마타나후 벤 호...'라고 새겨져 있다. 편지를 보낼 때 봉한 후에 찍는 돌로 만든 인장이었다. 마타나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이다. 이런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난다. 인장에서 벤은 아들이란 말이므로 '호'라는 말은 인장의 주인의 아버지의 이름의 시작하는 첫 글자일 것이다. 서쪽벽 근처의 하수도에서 발굴되었다. 주변에는 솔로몬시대의 유물들이 함께 발굴되었다. 성전산 부근에서 성전시대의 유물이 발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마타나후는 적어도 2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작년 6월에 그동안 5년 동안 끌어왔던 재판을 통해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유골함의 진정성이 확인되었다. Biblical Archaeology Review BAR의 보도에 따르면 아랍어로 '야고보, 요셉의 아들, 예수의 형제'라고 새겨진 유골함의 진정성을 확인했다. 물론 여기에 나타난 이름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지의 여부

는 또 다른 이슈이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에 많

갈릴리 남부의 Huqoq 회당에서 5세기경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삼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다. 사사기의 삼손이 블레셋 도시 가자의 성문을 메고 있는 모자이크가 회당바닥에 장식되어있다. 사사기 15장 16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묘사된 모자이크이다.

작년에는 벳세메스 발굴에 큰 진전이 있었다. 여러 가지 건축물의 유적이 발굴되었다. 또한 주전 11세기의 사사시대가 발견되었다. 벳세메스는 삼손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진 도시 중 하나이다. 이 인장의 독특한 것은 사자 옆에 사람이 서있는 인장이었다. 이 인장을 사사기 14장의 삼손과 사자의 싸움을 연관짓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실 이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국경지역의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다. 삼손의 출생지인 소말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또한 삼손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디나(현재 텔 바타쉬)와 가깝게 위치한다(삿14:1-3). 삼손이 사자를 쳐서 죽이고 만든 유명한 속담이 출처가 된 현장이다(삿14:14). 개인적인 생각에는 삼손을 나타내는 인장이 틀림 없는 것 같다.

성경에 나타난 가나안 최대의 도시인 하술에서 새로운 발굴들이 있었다. 하술은 북이스라엘 최대의 성

의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은 스프링크 상이 5피트 길이와 1.5피트의 높이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불태우고 파괴한 파괴된 층에서 발견되었다. 성경 여호수아의 정복 내용과 바로 연결되는 유물이다.

사해사본 가운데서 느헤미야서의 한 부분도 새롭게 발견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사본으로 알려진 사해사본은 구약성경의 대부분이 발굴되었다. 그중에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가 빠졌다. 하지만 이제는 느헤미야서 사본이 발굴되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더서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느헤미야서가 새롭게 발굴된 것이다. 노르웨이 사본학자인 Torleif Elvén가 속한 오슬로의 Evangelical Lutheran University College 팀에서 최초의 느헤미야 사본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룬란 4호 동굴에서 나온 사본이다. 사해사본의 해독이 진행될수록 더 많은 성경적 유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내용적으로 모든 면에서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더 확실하게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전도가 생활화 되게 한다!
복음으로 아버지 사랑 전하자!

제 52기 C.W.M. 전도훈련 세미나

고역자, 사모, 평신도 모두를 초청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시: 10월 21~22, 28~29일 / 월요일 화요일 저녁 7:20~오후 9:40
장소: 실로암교회(다우니에 소재)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수강료: 50불(교재, 전도지, 부수자료 포함)
연락처: 562-480-6975, 714-371-6406, 310-749-7522,
boksupcho@gmail.com

강사: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C.W.M.은?
• 1989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전도훈련 기관입니다.
• 각 나라별로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 지역, 교회마다 전도단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 C.W.M.에서는 수시로 개교회 전도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가나의 나눔바(NANUMBA)



나눔바족은 원래 화이트 블 타강과 오 티강 사이의 빈빌라 지역 북쪽에 거주했다가 지금은 가나 동쪽에 살고 있는 부족이다. 언어는 나눔바어를 쓰는데 이는 다그반어로 알려져 있는 구르어와 동일한 언어다. 또한 상용 언어

로 하우스어도 쓰여지고 있다. 나눔바족은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자매부족인 다콤바족과는 지속적인 협력관계에 있으며, 부족 간의 전쟁 특히 콘 콤바족과의 전쟁으로 근래 눈에 띄는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1년에는 가나와 영연방 토고(British Togo)와의 동맹에 찬성투표로 승리하자, 이에 격분한 콘콤바족을 경작할 농지조차 없는 국경 너머로 추방하기도 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수 백명의 인명을 앗아

가는 대가를 치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폭력사태가 가나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삶의 모습
나눔바인들 대다수는 농업에 종사하며 광활한 초원에 참마, 땅콩,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다. 농사의 대부분은 남자의 몫이며, 수확기에는 여자들이 일손을 거들기도 한다. 직조, 공예품 조각 등을 부업으로 해 부족한 수입원을 메꾸기도 한다. 남자들 중에는 수개월 간 고향을 떠나 남부의 코코아 농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밖에 사냥, 낚시 등도 중요하게 여기며 이로써 얻은 고기는 마을 전체 주민이 나누어 먹는다.
나눔바족은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은 편으로 등유 난로 등은

있지만 전기, 식수 등의 기본생활 여건은 미비한 상태에 있다. 물은 댐에 저장해둔 강물을 받아쓰며 열악한 수질구조 탓으로 기니아 기생충 등으로 인해 배에 이상이 오는 질병들이 유발되고 있다.
마을은 타원형의 성벽에 둘러싸인 밀집구조이며, 각 가구들은 부계혈연의 가족들로 구성돼 있다. 가족은 둥근 형태의 진흙집을 짓고 사는데 수해로 매 5년마다 새 건물을 해야만 한다. 마을에 중시 건물은 없고, 족장이 토지를 소유하며 소작을 주는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대가구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급별로 구분된 씨족단위로 나누어 있다. 도덕적 강령은 마을의 원로들에 의해 지켜지며, 씨족장은 부자상속으로 계승돼 재판

권을 행사하고, 제도적인 사회통제는 경찰이 맡고 있다. 남자에 의해 가계가 이어지는 부계사회이긴 해도 모계 즉 여성에 의한 정신적 소양의 계승은 인정되고 있다.
가장 큰 연례행사는 참마축제(the Yam Festival)로 이 기간 중에는 가마가 행해진다. 아직 전통 의상을 입으며 취학연령은 6세지만 가사가 가장 기본무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도 국립 대학이 생겼다.
신앙
대부분은 전통신앙을 믿고 있으며 오랜 동안 우상숭배가 행해져왔다. 전통종교에서는 “존귀한 창조주”에게는 근접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고, 자연신과 마찬가지로 조상숭배를 행해 부족의 원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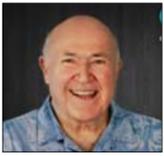
은 이 조상의 사당을 모시는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점쟁이들이 개인 삶의 주요한 위기나 결정에 있어 조언자가 되고 있다.
부족의 7%는 이슬람교도다. 이웃 다콤바족이 가나의 가장 강력한 이슬람부족으로 성장한 데 비하면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하나 이슬람 연례행사를 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아이의 할례는 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나의 선교단체가 현재 사역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선교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들 부족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보다 많은 사역이 요구된다. 또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봉사단, 구호물자 등도 절실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갈보리교회 척 스미스 목사 소천

미국 기독교계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꼽히는 갈보리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가 3일 소천했다. 향년 86세. LA타임스 등 외신은 스미스 목사가 3일 오전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 비치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이날 보도했다. 스미스 목사는 1년 전 폐암 발병 후 지금까지 투병해왔다.



스미스 목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 중 하나인 갈보리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다. 캘리포니아 코스타메사의 갈보리교회는 1965년 스미스 목사가 초빙되기 전 25명 정도의 교인이 참석하는 작은 교회였다. 스미스 목사의 리더십과 탁월한 목회 방식은 교회를 부흥시켰다. 한때 3만50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 현재 주일 평균 9500명이 예배에 참석한다. 갈보리교회는 3000명이 넘는 목사를 배출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1000곳이 넘는 자매교회와 결연하고 있다.

스미스 목사가 교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그는 1970년대 초 사회 문제였던 히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예수운동(Jesus Movement)'을 지휘했다. 코로나 델타 해변에서 수천명의 히피들에게 세례를 해 '파파 척(Papa chuck)'이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다. 전통적인 복음성가에서 벗어난 갈보리교회의 마라나타 뮤직은 전 세계에 퍼져 경배와 찬양의 대중화에 공헌했다.

스미스 목사는 하비스트크리스천펠로우십교회의 그렉 로리 목사 등 젊은 복음 전도자들의 멘토이기도 했다. 미 남가주대학 도널드 밀러 종교학 교수는 "그는 완벽한 선구자였으며 개신교 변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애도했다.

미 기독교지도를 연방정부 쟁탈전 비판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연방정부 쟁탈전(부분 업무정지)이 가난하고 험한 이웃을 도와주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한다며 비판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

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외 구호활동의 위축도 우려했다. 기독교 기반 자원봉사단체 소저너스의 짐 윌리스 대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보호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는 하나님을 부여한 역할 수행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처치 월드 서비스의 대표 존 맥컬러프 목사는 쟁탈전이 지속되면 국제 구호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맥컬러프 목사는 "전 세계 수많은 빈곤지역민들이 미국으로부터 식량과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굶주림 및 질병과 싸우는 이들을 돕는 사역이 더 이상 확장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지도자 33인은 쟁탈전에 대한 반대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한 서신 형식의 성명서에서 "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된 쟁탈전은 미세하게 회복되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중산층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며 미 의회를 비판했다. 쟁탈전의 악영향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

파리 기독교축제 3만명 몰려

프랑스 전역의 개신교인 3만여 명이 한 자리에 모인 기독교축제(사진)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복음화율이 2% 안팎으로 저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기 꺼려하는 프랑스에서 대규모 기독교집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2일 프랑스개신교연맹(FPF)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프랑스 파리의 파리-베르시 종합공영장과 베르시 공원 등지에서 '개신교 축제(Protestants en fete)'가 열렸다. FPF가 주도한 이번

대회에는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등 교파를 초월한 프랑스 개신교인들이 참여했다. 주최 측은 대회 기간 모두 3만여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소망의 파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주일인 지난 29일 오전 파리-베르시 종합공영장에서 1만6000여명이 드린 연합예배였다. 프랑수아 클라베로리 FPF 회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권했다. 그는 "소망은 결정을 부리는 말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라며 "소망을 품음으로써 정의롭지 않은 것에 저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교했다.

이번 대회에선 프랑스 개신교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과 신학 포럼, 성경책을 나누주는 이벤트, 록 밴드 공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평소 기독교 행사를 자주 접하지 못하는 프랑스 크리스천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프레데릭 프롱(22)씨는 "기독교인들이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며 즐거워했다. 신학을 공부 중인 뱅상 마르티네(26)씨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큰 도움이 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미 70대 특륜운전자 '도로 광고판 전도'

미국의 70대 특륜운전자가 43년 동안 75만 달러를 들여 복음을 담은 대형광고판(사진)을 30개 가까이 주요 도로에 설치해왔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에 사는 해럴드 스콧씨는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60만 달러를 들여 광고판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 15만 달러를 추가로 보냈다.



스콧씨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늦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광고판을 설치해왔다"고 말했다. 그가 세운 광고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고판은 그가 사는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에 집중돼 있다. 미식축구팀 그린베이 패커스의 홈구장인 램포필드 인근의 41번 고속도로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문구의 광고판이

걸려있다. 스콧씨는 "미식축구 시즌에는 하루 7만5000명의 관중들이 광고판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콧씨는 미혼으로 처자식이 없기 때문에 '광고판 전도'에 전 재산을 쏟아붓는 일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왜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느냐" "미쳤나" 등의 힐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마다 스콧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제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매년 수십만 명이 자신이 세운 표지판을 접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그만 둘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할아버지 이름을 따 '카이저 기독교 기금'이라는 비영리단체도 설립했다.

그레이엄 목사 "정보기관 감시, 종교자유 위협"

미국 개신교계 지도자인 빌리 그레이엄(95) 목사가 미국 정보기관의 사생활 감시 프로그램이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레이엄 목사는 새 저서 출간을 앞두고 6일 인터넷 매체인 뉴스맥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안보국(NSA)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추적, 수집하는 데 대해 "미국인들은 언제나 자유를 위해 투쟁해왔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세워진 이유"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스스로 위대하게 했던 것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이의 움직임을 알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유를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겪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누가 가장 모범적인가라는 질문에 "12명의 대통령 모두를 목사로 섬기고자 했고 또한 그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특권을 누렸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격동하는 세상과 정치적 위기 속에서 자신들에게 닥치는 무엇인가에 매달리고 싶어하는 존재들"이라며 "지도자는 외로운 자리이며,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말론과 관련해서 "인간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심판받지 않고 타락한 세상에서 오래 살 수가 없다"며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2013년 10월 21일 - 12월 13일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Korea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On Campus Course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 -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Troelstra)는 일생동안 카이퍼 노선을 비판했다. 카이퍼는 그가 쓴 논설이나 소책자에서 그의 반대자를 마치 고양이와 쥐를 다루듯 했다고 한다. 카이퍼는 그와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을 할 때는 종종 정서적으로 억살스럽고 온순한 말을 하려고 했으나 그의 말은 신랄하고 격렬했다.

카이퍼는 논쟁가였다. 논쟁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논쟁을 즐기는 타고난 싸움꾼이었다. 카이퍼는 그가 확신하고 있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는 개혁주의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반대자를 굴복시키는데 천부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카이퍼는 논리적 토론을 즐겼으며 그리고 열정적이었다. 어떤 때는 친절했고 어떤 때는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과장한다는 인상을 주고, 때로는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도 천재적이었다. 말하자면 천재로서의 카이퍼는 감정의

방면에 그 자질이 나타나곤 했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상상적이기도 했다. 그가 어떤 이론을 만든 후에는 반드시 끝까지 밀고 나가려는 저력도 갖고 있었다. 대개의 경우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논리와 합리성이 부족하기 마련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감성이 부족한 편이기 쉽다. 그러나 카이퍼는 지성과 감성 그리고 영성을 한꺼번에 다 소유한 아주 보기 드문 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게 일했음으로 허둥대기도 하고 복장이 단정치 못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날마다 강연을 하고 날마다 사설을 쓰고 날마다 성경명상록을 쓰고 날마다 정적들과 싸우는 준비를 했다. 그리고 날마다 자유주의들과 힘겨운 승부를 겨루어야 했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천재적인 머리도 있었지만 그의 근면성, 뜨거운 정열, 흔들림 없는 그의 꿈의 실현, 하나님

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그의 투쟁 신학자와 목회자로 거듭나게 된다. 만에 하나 카이퍼가 베이스트 교회에서 칼빈과 돌트신경을 고수하는 개혁주의자들과 만남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갔을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화란국 가교회 즉 갱신교회 교인이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형성하는 힘이 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품성을 도야해서 훌륭한 시민으로 또는 학구적인 학자로 발돋움하게 했다. 카이퍼는 일찍 회심을 체험했는데, 앞서 말한 베이스트의 칼빈주의자들의 도움 때문이다. 이는 일찍이 그가 라이덴대학교 신학부에서 체험하지 못한 영감을 새로이 받게 되었다. 푸칭거 박사의 표현대로 하면 "종교적인 불통이 접화된 감동을 잘하는 카이퍼 자신은 문화적인 화약통으로 변했다. 즉 그것은 일단 폭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까지 화란에 많은 흔적을 남겼다"고 했다.

카이퍼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영적인 깊은 곳에서 다함이 없는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결국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만들었다. 카이퍼의 회심은 그냥 영적인 변화 뿐 아니라 그의 학문, 그의 사상 그의 세계관 전부의 변화였다. 19세기말 자유주의 사상이 장악하던 시대에 16세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회복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사람 천재적인 카이퍼를 그의 도구로 쓰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천재적 머리와 근면성, 정열, 확고한 꿈의 실현이 하나님 주권위한 투쟁과 어우러져 칼빈사상 고취”

2. 카이퍼의 신앙과 인격형성

아브라함 카이퍼는 특이하고 천재적인 인물이었다. 1897년 찰스 보이스벤(Charles Boissevain)이란 학자는 카이퍼를 가리켜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팔을 가진 사람”(een Tegenstander, die Tien Hoofden en Honderd Armen Bezit)이라고 평했다.

카이퍼는 하도 다방면에서 천재였으므로 그저 경이로운 인물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한 가지에도 천재가 될 수 없는 데 카이퍼는 실로 여러 방면에 천재였다. 그는 천재적인 머리만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논리가 이자 실천가이고, 감성과 지성과 의지력, 호소력, 리더십을 한꺼번에 갖춘 걸출한 인물이었다.

카이퍼가 1920년 11월 8일 83세로 서거했을 때 전세계 120여개의 일간지와 주간지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카이퍼를 칼빈주의 신학자와 정치가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대서특필 했다. 특히 미국의 그랜드래피드 프레스(Grand Rapids Press)지는 그를 “제2의 칼빈으로서 카이퍼”(Kuyper as a Second Calvin)라고 했다. 그리고 카이퍼 연구의 대가이며 제1회 카이퍼 대상을 받은 푸칭거(George Puchinger) 박사는 그의 기념연설에서

“카이퍼는 우리에게 여전히 매혹적입니다”란 말로 시작했다. 1980년 필자가 푸칭거 박사와의 대화중에 오늘날 카이퍼에 대한 관심이 화란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다. 푸칭거의 대답은 앞으로 카이퍼의 신학과 신앙운동은 다시 부흥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대답했다. 여기서는 카이퍼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청소년기에 그가 가졌던 꿈과 비전은 무엇이며 그의 이상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려고 한다.

념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카이퍼의 초인적인 능력과 꿈이 이루어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했고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감격스러워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에게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의 이상적인 꿈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젊은이나 나이 많은 세대를 불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으며, 그의 설교와 강연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과 꿈을 가졌다. 그러나 어떤 이는 등을 돌리기도 했다. 그를 개인적으로 만

카이퍼는 위대한 꿈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꿈꾸던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열매 맺은 사람이었다. 카이퍼는 조그마한 어촌 마슬루이스(Maassluis)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꿈 많은 소년으로 자랐다. 그는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난데다, 천재적인 감수성과 영감으로 그가 발표한 모든 것은 히트를 쳤고, 그가 구상하고 계획했던 꿈을 기어코 성취시키나간 집

나게 되면 그의 저서에서 보듯 갑자기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매력 있는가 하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난처하게 하고 분노케 만들었다.

카이퍼의 정치적 후계자인 코라인(Dr.H.Colijn) 박사는 카이퍼를 가르쳐 “국가의 상징으로서 카이퍼”(Dr. Kuyper Als Nationale Figuur)라고 했지만, 카이퍼의 정치적 적수인 프롤스뜨라(P.J.

폭이 넓어서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카이퍼 노선을 따르는 사람은 늘 갑탄했고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던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카이퍼의 논리에 당해낼 수가 없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하나 여기서 살피려는 것은 카이퍼는 예술적 감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예술적 감성을 가진 자로서 여러

들이 어우러져서 위대한 칼빈주의 사상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카이퍼의 이런 성격의 바탕위에 26세의 나이에 목사가 되고 베이스트(Beesd)교회에 첫 목회지에서 일할 때 위대한 칼빈주의적 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과 만났다. 그때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켰다. 카이퍼는 자유주의적인 청년목사로 첫 목회지에 가서 두 번째 회사를 체험하고, 개혁주의

의 형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제물을 드려 예배하는데 그 제물은 곧 살아있는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의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어도 찬양할 수는 있으며 다른 일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우나 찬송은 쉽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생활은 곧 예배요, 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제도도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예배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복잡한 절차와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달리 예배의식이 나 형식에 제약이 없이 고린도후서 3장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비교적 자유로

한 체험으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의 체험과 영적 자유함을 얻습니다. 4)감사는 예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5)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는 것이 곧 찬양의 힘입니다.

6)기쁨과 평안 그리고 환희를 체험하게 되는데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7)헌신과 회생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데 결코 인색한 마음이나 거짓으로 드러서는 안 됩니다.

(10면으로 계속)

칼럼 음악목회 (15)

예배와 찬양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예배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1에 “사람의 제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3장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히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곧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해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의 제사를 살펴보면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와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

드로전서 2장 5절, 9절은 만인 제사장설을 뒷받침 하는 말씀으로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나 주신 것과는 달리 누구나 성령세례를 받은 성도는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며,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인

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의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눈을 감고 기도할 수는 없어도 찬양할 수는 있으며 다른 일을 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우나 찬송은 쉽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생활은 곧 예배요, 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제도도 구약의 제사제도와 신약의 예배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복잡한 절차와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제사제도와 달리 예배의식이 나 형식에 제약이 없이 고린도후서 3장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비교적 자유로

한 체험으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거듭남의 체험과 영적 자유함을 얻습니다. 4)감사는 예배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5)찬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을 위한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는 것이 곧 찬양의 힘입니다.

6)기쁨과 평안 그리고 환희를 체험하게 되는데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영혼이 누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7)헌신과 회생의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데 결코 인색한 마음이나 거짓으로 드러서는 안 됩니다.

(10면으로 계속)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 (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59. 창조론의 기초(10) - 화석 속의 생체 물질

세상 지질학자들 뿐 아니라 고생물학자들도 지구에 있는 지층들은 수백만 혹은 수십억 년 된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에 공룡이나 다른 화석 속에 생체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를 조사해 보지 않았다. 만약 진화론적인 시간표가 사실이라면 생체 성분들은 완전히 광물화 되었거나 오래 전에 분해되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그렇게 오래 되었다는 화석에서 생체 물질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백만 년 되었다는 화석에서 다양한 단백질, 당류들, 색소들, DNA 등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거의 온전한 세포도 발견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피부, 인대, 안구의 각막, 뼈, 그리고 혈관이 발견되기도 한다.

생명체의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조직들도 일부 혹은 전부가 광물화로 치환된 상태로 발견된다. 광물질이 풍부한 물이 뼈, 피부, 혹은 부서지기 쉬운 원래 조직을 대체했을 때 광물화가 이루어진다. 이때 일부 부드러운 조직들이 광물화가 되었음에도 아직 광물화 되지 않은 원래 조직도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광물화 되지 않은 원래 조직이 남아 있는 화석들이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영국, 독일, 스페인, 마다가스카르, 캐나다, 중국 등에서 발견되었다. 심지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화석들에서도 생체 물질들이 들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 화석들이 수백만 년 이상 된 것이라면 그런 조직들이 남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드로사우루스(Hadrosaur)의 예: 1908년에 발견된 하드로사우루스는 그동안 발견된 공룡화석들 중 가장 보존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몬타나 주의 Hell Creek 지층에서 발견되었다. 진화론자들은 피부까지 남아있는 이 화석이 68,000,000년 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진화론자들은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지 않고 진화론의 시간에 맞게 결정한다). 같은 층에서 발견된 다른 공룡들의 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28,790- 20,850년이였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다른 공룡들로부터 뼈 단백질인 collagen, elastin, 그리고 유전정보 조절 유전자 단백질인 PHEX 와 histone H4, 뼈 단백질 osteocalcin, 그리고 상피세포, 적혈구, 뼈세포 등이 발견되었다.

몽인 모사사우루스는 남극을 비롯해서 대륙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 화석에서는 화석화 되지 않은 헤모글로빈, 보라빛 망막 세포들, 비늘 등이 발견되었다. 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24,600년이 나왔다. 헤모글로빈은 수천 년이면 다 분해되므로 이 화석에서 발견되어서는 안된다. 진화론을 믿는 연구자들은 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오염되었을거라고 말하면서도 그 생체 조직은 원래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오래된 화석에서 단백질, 당류, 색소, DNA 등 생체물질 계속 발견 생체 단백질 분해속도 측정결과 '수천 년 이상 존재 못한다' 결과



7000만 년 된 화석에서 나온 것일까?

1992년 몬타나 주에서 발견된 공룡 T. rex의 화석화 되지 않은 뼈 속에서 발견된 조직이다. 진화론자들은 이 공룡의 뼈가 70,000,000년 되었다고 결정(!)했지만 남아 있는 생체 조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주걱철갑상어(Paddlefish)의 예: 와이오밍 주의 한 강(Green River)의 지층에서 발견된 이 물고기 화석은 진화론적으로 50,000,000년 된 것이라고 하는데 역시 화석화 되지 않은 생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탄소 연대측정 결과는 33,650년으로 나왔다.

바다나리(Sea Lilies)의 예: 최근에 발견된 한 연구논문(Geology, March 2013, v. 41, p.347-350)은 진화론적으로 340,000,000년 전의 지층에 동시에 매몰되어 있는 여러 종의 바다나리(Sea Lilies, Crinoidea) 화석에서 각 종에 특징적인 생명체의 물질을 확인하였다. 바다나리에만 있는 생체 물질인 방향족의 퀴논(poly-

aromatic quinones)들이었는데 이 물질들은 지금 살아 있는 바다나리에 있는 색소 성분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었다.

이 밖에도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공룡 T. rex의 뼈 속에서 콜라겐과 혈구, 혈관 등이 발견되어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되었다(2007년). 이 보고서 이후 화석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는 생체 성분들이 발견되었다는 학계의 보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공룡에서, 수룡에서, 도마뱀에서, 오징어에서, 전갈에서, 바다나리에서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극렬한 반대로 교과서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겨진 시조새의 화석에서도 콜라겐, 헤모글로빈, 케라틴, 일라스틴, 멜라닌 등의 단백질, DNA, 키틴, 퀴논 등의 생체 물질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사실들은 연대측정도 하지 않고 부여한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의 나이와는 크게 상충되는 것이다.

생명체의 성분은 얼마나 오래 존속할까?

실험실에서 생체 단백질이 분해되는 속도를 측정해본 결과 단백질은 수천 년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혀졌다. 단백질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보존되는 것이 뼈 속에 들어 있는 콜라겐(collagen)인데 이 단

백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오래 보존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콜라겐도 우주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에 따라 점점 분해되기 마련이다.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분해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엄격한 반복실험을 통해 알아낸 사실은 섭씨 10도에서 100도의 콜라겐은 최대 700,000년 보존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450,000년 정도 존재 가능하다. 보존 온도가 섭씨 21도가 되면 보존 기간은 2,000년으로 줄어든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진화론자들이 믿고 있는 공룡화석들의 나이는 65,000,000년 이상이므로 공룡화석에서는 생명체 성분이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룡화석 뿐 아니라 공룡화석들보다 더 오래 되었다는 많은 다른 화석들에서도 생체 성분들이 발견되고 있다. 진화론적인 연대는 과학과 상충된다는 말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신뢰는 하나님 마음이 들리는 때문 키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세상의 소리, 육의 소리에 채워져 고정되어 그 소리만이 아주 익숙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들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 식으로 듣고 보려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마음으로 감동받고 스스로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제일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애쓰는데 여전히 내 눈의 잣대로 이해하려니 하나님의 깊이신 뜻보다는 자신의 얕은 이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타협없이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따르면 그 맛을 점차 알게 되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 분과 사랑을 정말 친구 사이처럼 가까워지며 머릿속의 들은 지식이 아닌 어느 것도 흔들지 못하는 삶 가운데 요동 않는 사랑의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하나님 마음이 크게 들리는 것과 비례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리 지식에서부터 가슴의 지식으로 내려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키는 바로 신뢰입니다. 어떻게 신뢰라는 키로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가 나누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수1:8). 우리가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도무지 마음도 몸도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 다 지켜 행해야 길이 평탄하고 형통한데, 우리는 매일 넘어지기만 하니 우리 길은 매일 험악해야겠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양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살라는 뜻이신데 우리는 풍성히 살기는 불가능하겠네요? 그리 힘들면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지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의 차이의 오해로 말씀이 잘 안들어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지도나 요즘은 네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아는 길 갈아서 자기 기억을 더듬어가며 지도를 무시하고 갈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비게이션 물어보면 틀린 길을 재조정해줍니다. 조정해준 대로 따라가면 아무리 길을 잃어버려도 돌아오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잘못해 제 갈 길로 갔다가 어, 이런 길이 아닌데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선 뭐라했지 하고 아무리

아무리 넘어지고 길을 놓쳐 헤매도 당황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 그 놓친 길에서 멈추어 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몽땅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없이 100% 지켜야만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무리아무리 넘어지고 길이 거칠어도 일어나 포기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중심을 믿음으로 다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낙심하여 희망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낙심하고 비관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에 빠짐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훔쳐가 죽이는 키 코스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열려 근심의 소리들이 내안에서 너무도 시끄럽게 방송해대면 열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야. 그분은 내 인생을 책임지셨어, 나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분의 소중한 사람이야”라고 자신에게 말해줌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이 환경을 뛰어넘어 내 마음을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부여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에게 드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내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연습에 아무리 넘어져도 자책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고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 결심하고 일어나다보면 결국 조금씩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빨라집니다. 불안보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크게 들리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의 지식을 삶으로 실천할 때 가슴의 지식으로 자리잡고 삶속에 배어나오고 내가 평탄한 길을 누리며 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통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 아무리 넘어져도 뒤돌아보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일어나는 자되어 나로 인해 주위에 하나님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 하나님이 자신을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통로 되어 살겠습니다. 작정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가운데 계속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2013년 **10월 17일(목) ~ 24일(목)**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www.galmelsan.or.kr



목회서신

자랑스런 왼손잡이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같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겁에 질려 가까이가지 않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을 연상하면서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나 해칠까봐 바다에 가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람을 떠올리며 바다는 사람

을 죽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 고기를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배를 만들고 그물을 준비하여 고기를 잡습니다. 맛있는 생

선을 잡아,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물로 소금을 만들겠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염전을 일구고 바다물을 유입시켜 햇볕에 건조시킵니다. 우리가 음식에 넣어 맛을 내는 소금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때문에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향해하여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겠다는 소망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해운 항만업이 발달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에게 어느 날 학부모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왼손잡이라서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 아이들이 왼손잡이라고 놀려대는 것을 보면 너무나 속이 상한다고 하면서, 왼

손잡이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듣고 난 후, 교사는 도서관에 가서 왼손잡이에 대해 자료를 찾아 햇볕에 건조시켰습니다. 열심히 연구한 결과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꿀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왼손잡이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학부모들의 동일한 고민을 들어주면서, 이 교사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왼손잡이 아이들을 교정해주면서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왼손잡이 아이들 중에 창의력이 발달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과 왼손잡이를 오른

손잡이로 바꾸어주면 그 창의력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더니 그로부터 아무도 왼손잡이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꾸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빛낸 세계적인 예술가들 중에는 왼손잡이들이 많습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이 왼손잡이였습니다. 정치지도자 중에 빌 클린턴, 마하트마 간디가 왼손잡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왼손잡이입니다.



제7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축제에서 이날 참석한 목회자 부부들이 이날 참석자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제7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축제 성황 미주웨슬리언연합회 주최 총11개 찬양팀 참가

미주웨슬리언연합회(회장 박재호 목사)가 주최한 제7회 웨슬리언 연합찬양축제가 6일 오후 6시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총 11개 찬양팀이 참가한 연합축

제는 미주웨슬리언연합회 이사이자 찬양교회 담임인 김성대 목사의 환영의 말씀과 미주한인나사렛교회 총연합회장 이봉하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찬양축제는 구세군나성교회(담임 이주철 사관, 지휘 김나

정), 드림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지휘 김무섭), 남주빌라델비아교회(담임 임승호 목사, 지휘 서상민), 나사렛교회연합성가대(지휘 김혜숙), 셋별선교합창단(단장 이봉조, 지휘 오상환),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구진모 목사, 지휘 이진남), 로스펠리츠연합감리교회(담임 신병욱 목사, 지휘 임대수), LA연합감리교회(담임 김세환 목사, 지휘 진정우), 예성목회자찬양단(지휘 고성원), 유니온교회(담임 민병용 목사, 지휘 이요셉), 한빛교회(담임 차광일 목사, 지휘 이경원) 등이 참가해 격조 높은 찬양을 선보였으며, 한빛교회는 찬양대와 밴드와 함께 찬양을 불러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이날 찬양축제는 목회자 부부 찬양(지휘 구진모 목사)과 웨슬리언 연합회 제2대 회장 이정근 목사(유니온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참사랑교회 오픈 커뮤니티 행사에 참석한 6.25참전 군인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섰다.

뉴욕 참사랑교회 오픈 커뮤니티 행사 지역사회와 소통...6.25참전, 입양가족 초청

뉴욕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가 5년째 실시하고 있는 오픈 커뮤니티 행사가 지난 6일 동 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들과 히스패닉, 흑인, 백인 그리고 6.25참전용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용사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늘의 한국을 소개 △한국 입양아 가족들을 초청해 한국 전통 문화를 통한 뿌리 찾기와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열린 소통을 통한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 안에서의 한국 문화교류와 협력과 한식 나눔 6.25.62 주년을 맞아 점점 사라져가는 참전

행사는 1부 6.25전쟁 사진전을 시작으로 2부 기념식에 이어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올해는 특별히 다민족, 다문화 공연이 함께하는 행사로 발전됐다.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MCCNY(Multi Culture Council of NY), 참전군인과 가족들, 입양아와 가족들이 초청됐다.

공연팀들은 Christ's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Hempstead(Mrs. June), 프론트 초등학교(이소영 선생), 프리포트 감리교회(Rev. Dr. David D. Henry), 서퍽카운티유스오케스트라(지휘 윤영걸), 한국전통무용팀(홍영옥 선생, 부채춤), 한국전통음악(김사라, 최은실), 태권도시범(김기영 관장) 등이 출연했다.

이날 민승기 뉴욕한인회장과 이우성 한국문화원장, Wayne J.Hall Sr gpa스태드 시장과 시의원과 참전군인, 입양아 가족 등이 참석했다. 홀 햄스테드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참사랑교회에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사랑교회는 2009년 '열린목회, 지역사회를 위한 열린교회' 선언 이후 비기독교단체를 지원하고, 건강한 한인사회 만들기를 위해 예산의 1%를 나누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유원정 기자)



4차원여성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주최한 4차원여성 글로벌 포럼 17기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4차원여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제1기 세미나 강사에 석종규 목사, 캐더린김 사장, 제이슨전 선교사

4차원여성 글로벌 포럼(회장 석종규 목사)은 제1기 세미나를 5일 오전 8시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에서 열었다. 4차원 글로벌포럼 최명상 미주본부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석종규 목사, 캐더린김 하워드존슨 호텔 풀러턴 사장, 제이슨전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을 하며 나아갔더니 물고기를 잡게 됐다. 이는 자신의 체험과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고치고 나아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종규 목사는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속에서 적용해 나간다.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캐더린김 사장은 "호텔경영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것인지를 생각해 하며 살아왔다. 디즈니랜드 앞에 위치한 호텔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처분할 때까지,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호텔에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항상 있었다는 것에 놀

라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하워드존슨 호텔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선교단체 등 교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슨전 선교사는 "생각이나 믿음, 꿈, 그리고 말 등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말로 나오게 되고 믿음은 생각과 꿈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원여성에서 말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은 파괴적인 것이며 이러한 것을 말로 표현되면 우선적으로 나 자신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10가지 말 즉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롭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을 하며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황인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가정을세우는사람들, 커플관계진단 및 상담워크샵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커넬대학교에서

"미혼 및 기혼커플에게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이 필요하다." 가정사역단체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공동대표 김병달 목사, 금정진 사모)과 써니슨교수는 커플 상담관련 워크샵을 열고 건강한 한인가정 만들기 위해 나선다.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검사인 본 프로그램은 데이트 중이거나 약혼, 기혼, 재혼, 동거, 자녀 유무에 따라 배경질문에 답하면 100가지가 넘는 맞춤형 질문이 주어지며, 검사 결과를 본인이 직접 살펴볼 수 있다. 원하는 경우엔 상담자(진행자)에게도 주어지게 된다. Prepare-enrich 온라인 검사를 통해 정확한 커플관계를 감성영역과 성장필요영역 등으로 진단이 되며 개선할 수 있는 지점도 제공된다.

Prepare-enrich(커플관계 진단 검사 프로그램)은 30년간 상담자들과 목회자, 교육자들이 손잡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세계 주요 국가들 안에서 600만명 이상 검사가 진행된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커플 관계검사 및 자격증 워크샵을 통해 혼전상담을 위한 가이드가 제공되며 부부들을 위한 상담 및 지도할 수 있도록 돕고, 수료자

들은 지역별, 상담자로 등록돼 커플관계 상담활동도 할 수 있으며 커플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연결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19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에나하임에 소재한 커넬대학교(3319 W Lincoln Ave)에서 진행된다. 강사로서는 써니슨 교수(탈북목회상담학과)와 금병달 목사(가정을 세우는사람들 대표, 커넬대학교 상담대학원 원장) 및 금정진 교수가 나서고 있고, 등록비는 195달러(DVD 및 교재, 간식, 커플관계상담 자격증 포함). 부부가 함께 참여할 경우와 재 수강자는 50달러를 추가로 내면된다.

문의: (714)287-2458 웹사이트 www.family4family.com (가시제공: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 을 찾자! ReNEW 2013집회, 11월 28-30일, 보스턴에서

ReNEW 2013집회가 11월 추수 감사절인 28일부터 사흘간 보스턴(터블트리 호텔)에서 청장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The Power of Gospel)으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희석돼버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과 그 능력을 다시 깨닫게 해 세상을 향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대안임을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말한다.

기도운동(Haystack Prayer Meeting)과 이후 이어진 학생선교 운동(SVM: Student Volunteers Movement)은 현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다. 주최 측은 "ReNEW 집회는 기독교 부흥사의 큰 줄기를 만들어낸 사건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

기 위해 건조터미에 모였던 다섯 학생의 기도 가운데 시작했다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며, 오늘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직히 구하는 마음으로 본 집회를 ReNEW라고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첫날 "복음, 십자가의 부활", 둘째 날 "연합,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십자가의 능력", 셋째 날 "부르심, 나의 십자가"란 주제로, 말씀과 세미나, 기쁨부음 넘치는 찬양과 예배, 그리고 실제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소그룹 모임, 분야별 전문인 멘토링, 일대일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김창근, 권지현, 민영기, 신기영, 정대성, 임홍섭(이상 목사), 권순영 장로, 전경숙 사모, 최영식 전도사, 김재원 안나운서 등이다. 그 외에 같은 장소에서 Nursery Room, Kids ReNEW, Youth ReNEW 등이 열린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renewusa.org 에 나와 있다. 일반 문의는 이메일 renewusa@gmail.com, 등록문의는 renewregister@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본/사/방/문

LA여성선교합창단 제 5회 정기연주회 20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



LA 여성선교합창단 임원. 앞줄 우측 단장 최정직 사모.

LA 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직) 제 5회 정기연주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정영희 목사)에서 개최된다.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본사를 방문한 최정직 단장, 박경례, 김광숙 부단장, 권용선 총무, 김형숙 서기가 제 5회 정기연주회에 관해 소개했다.

"찬양으로 선교에 동참하자"는 뜻을 모아 2002년 창단됐다

고 소개하는 LA여성선교합창단은 "미약하지만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통해 선교단체를 돕는데 앞장서 왔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회계 백영자 권사가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탄해 웃었다. 본 합창단은 제 1회 연주회를 통해 시작됐던 50여명의 수송을 도와 빛을 선사했으며 이외에도 러시아고려인선교센터 건립, 미주복음방송 후원 등을 위해 연주회를 개최해왔다.

금번 제 5회 정기연주회 역시 정신치료사역(Healing ministry for mental problem)을 돕기 위해 나섰다. 합창단원들은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어 보람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본 찬양팀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정직 사모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모이고 움직이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기에 감사하다"며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정기연주회에는 배재코랄이 특별 출연하며 성가, 한국 가곡, 외국가곡, 복음성가, 오페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지휘 최왕성 집사, 반주 박명선 사모가 각각 맡았다.

LA 여성선교합창단은 함께 사역할 단원을 찾고 있다.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760 웨스트몰랜드(7가와 만나는 곳)에 소재한 미국교회에서 연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213)700-288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욕목사회 정기총회 11월 18일

7일 임실행위, 정부회장 후보등록 8일까지

해준 실행위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창섭 목사, 위원으로 최예식 목사, 김기호 목사, 임병남 목사, 조병광 목사, 이봉삼 목사. △정부회장 후보자 등록공고는 10월 18일(금)부터 11월 8일(금)까지.

△정부회장 후보 기간간담회는 10월 21(월) △장학금 전달 및 사랑의 쌀 나누기는 28일(월) 오후 6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 장학금은 회원 자녀 중 대학(원) 재학생으로 신학생을 우선한다.

△정기총회는 11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미정. △신임회원은 총 15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준비를 마친 8명과 서류미비자는 7명. 이날 실행위는 신임회원의 철저한 자격 심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신청자들의 교단 및 안수 등 자세한 사항을 다음 실행위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기로 결의했다.

이는 최근 무더기 안수 및 교단 불투명 등에 대한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회원가입이 실행위를 통과하면 총회에서는 신임회원 인사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의됐다.

이날 회의는 윤오성 목사의 마침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 "생명살리기 연합집회"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가 주최하는 "생명살리기 연합집회"가 11월 6일(수)부터 13일(수)까지 지역별로 개최된다. "복음은 생명입니다"(막16:15-18) 주제로 강사는 김유수 목사(광주월광교회 담임). 지역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웨제스터: 6일(수) 오후 8시, 한인동산교회 △플러싱: 8일(금) 오후 9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 △스태튼아일랜드: 10일(주) 오전 7시, 11시 뉴욕성결교회 △리틀넥: 10일(주) 오후 2시 뉴욕 은혜교회 △롱아일랜드: 11일(월)-13일(수) 오후 8시 뉴욕에일장로교회.

▲문의: (917)224-2000

제 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

목회자(사역자)를 위한 제 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가 오는 19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퀸즈농장 내 아드리안스 하우스(73-50 Little Neck Pkwy, 말우지 옆)에서 열린다. 당일 오전 10시20분 플러스 공영주차장 우리은행 앞에서 픽업이 가능하다. 강사는 김필식 목사(뉴욕영림교회 담임, UTS학장), 이창중 목사(뉴욕동서교회 담임), 김경옥 전도사(청교도가정사역원장, 부평현대교회 가정사역부담당). 간단한 점심이 제공된다. 무료.

▲문의: (646)651-2071, (718)369-1588.

미드웨스트대학교 2014년 봄학기 장학생 모집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2014년 봄학기 전역 장학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경영학, 음악, 기독교교육, 성서신학으로 학사학위과정 30명. 2년차부터는 상위 50%학생은 전액, 중간 25%는 60%, 하위 25%는 50% 장학혜택을 받게 된다. 전원 기숙사에 입소해야 한다. 1차 모집은 10월 31일, 2차 모집은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www.midwest.edu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636)327-4645

뉴욕새생명장로교회 추계부흥성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가 10일부터 13일(주)까지 추계부흥성회를 열고 있다. 강사는 홍일남 목사(한국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집회시간은 저녁 8시30분, 새벽 5시45분, 주일은 오전 11시. 한편 새생명장로교회는 지난 6일까지 21일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진 바 있다.

▲문의: (718)637-1470

메트로폴리탄인연합감리교회 설립 31주년 기념연주회

메트로폴리탄인연합감리교회(담임 한영숙 목사)가 오는 21일(주) 설립 31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기념 연주회를 갖는다. 예배는 오전 11시, 연주회는 오후 5시. 연주회 내용은 Brass Double Choir with Organ and Percussion.

▲문의: (212)932-7746



뉴욕목사회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신광교회를 은퇴하는 한재홍 목사부부.

한재홍 목사 은퇴 및 이메리터스 목사추대

6일 뉴욕신광교회 강주호 담임목사 위임예배

뉴욕신광교회 한재홍 목사 은퇴 및 이메리터스 목사추대와 강주호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지난 6일 저녁 열렸다. 한재홍 목사는 뉴욕신광교회를 개척, 지난 28년간 담임했으며 RCA 교단은 한 목사를 이메리터스 목사로 추대했다.

1부 예배는 조대형 목사의 인도로 기도 환영진 목사, 성경봉독 김근욱 장로, 호산나찬양대 찬양, 설교 김종훈 목사, 헌금기도 이재복 목사 등의 순서로, 2부 은퇴 및 이메리터스 목사 추대식은 김종국 목사의 인도로 김근욱 장로 추대사, 이재호 장로 목회여정 소개 후 축사 한재홍 목사, 김인식 목사부부의 축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강주호 목사 담임목사 위임예배는 Neil Margotson 목사의 인도로 윤여훈 장로 정병확인, 김기호 목사 권면, 김종덕 목사 권면, 신광아가파오여성중창단 축가, 엔학교래 목회자모임 축가, 강주호 목사 담사, 윤여훈 장로 인사 및 광고, 강주호 목사 축도, 김태택 목사 만찬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재홍 목사는 은퇴 담사 대신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불렀다. 한재홍 목사는 이날 RCA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한재홍 목사는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M.Div),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D.Min)를 졸업했으며 트랜튼장로교회와 상향개혁장로교회를 개척했고 뉴욕신광교회를 개척 후 28년간 담임했다.

교계단체로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장, 뉴욕청소년센터 대표, 미주기독교방송국 사장, 기독교인협회장, 뉴욕성신클럽회장,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뉴욕실버교회 이사장, 아이티 뉴욕기독교연합교회회장, 겨레사랑 미주동부지구회장 등을 맡고 있다.

새 담임 강주호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뉴브런스윅신학교(M.A.)를 졸업했으며 매산여고 교목을 역임했다. 2008년 신광교회 부목사로 부임해 2012년부터 동사목사로 섬겨왔다.

강주호 목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신광교회를 사랑하겠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영광이 되는 협력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 제 41회기 임실행위위원회가 지난 7일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열렸다. 목사회는 이번을 마지막 실행위로 계획했으나 신임회원 가입 절차 등을 이유로 총회 전 실행위를 한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송일권 목사 인도로 기도 유상열 목사, 설교 최예식 목사, 광고 김기호 목사, 축도 황동익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예식 목사는 "조언자는?"(출 18:19)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조직 관리에 대한 조언을 했다. 조언자는 먼저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하고 솔직함과 자상함이 있어야 하며 지혜로운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성도들에게 꿈을 주는 권면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부 회의는 최예식 회장 사회로 김홍석 목사의 개회 기도후 개회인사, 업무보고 및 사업계획 발표, 안건처리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예식 목사는 이번 회기에 협력



뉴욕권사합창단 정기연주회에서 단원들이 찬양하고 있다

기도가 필요하다... "주의 기도" 주제

뉴욕권사합창단 제 12회 정기연주회 성료

뉴욕권사합창단(단장 손옥아 권사, 지휘 양재원 교수) 제 12회 정기연주회가 "주의 기도"라는 주제로 지난 6일 저녁 6시 후러심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렸다.

장영준 목사(본지 발행인, 퀸즈장로교회 원로)의 기도후 시작된 연주회는 합창(주기도문, 눈을 들어보아라, 사랑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요, 선하신 목사), 특별출연 아름다운남성합창단(큰일났네, 콧바야), 합창(기도, 주님과 함께, 나 주의 믿음 갖고, 그의 빛 안에 살면), 특별출연 메조소프라노 박영경(그 옛날 주가 걸으신 길,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합창(칸타타 주기도문 11곡)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축도는 장동일 목사가 했다.

이번 연주회에서 모금된 기금 역시 예년과 같이 불우이웃돕기와 선

교기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연주회 시작 전 백성희, 김남선, 양정임, 이경현, 홍제니 단원에게 10년 근속표창이 있었다. 이날 친교기도는 최창섭 목사가 했다.

손옥아 단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심히 연습에 임한 단원들과 후원해주신 교회, 업체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뉴욕권사합창단은 2001년 9.11사태의 충격을 보고 몇몇 권사들이 모여 남은 삶 주님 찬양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돼 현재까지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뉴욕과 미주 전역, 한국 등을 순회하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본지 1453호 16면 참조).

(유원정 기자)

칼럼 음악극회 (15)

(7면에서 계속)

즐거움으로 정성껏 자신을 드러내듯 드러야 합니다. 8)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현실의 삶에 재조명하여 영감 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적용될 때,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는 귀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9)소명의 시간은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받아 결단하고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를 말합니다. 10)성결은 성도의 삶의 출발점으로 연장선상에 있는 현실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11)친교는 성도가 하나 됨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교회 즉 공동체가 유기체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필요를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곧 삶의 예배 즉 산제사의 삶을 말합니다.

▲연락처: (714)699-0210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동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맞닥뜨리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고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낸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이다.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동관, 박형란의 케냐 사랑 이야기 www.kensarang.com
이동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라》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어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따뜻한 기도처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에는 잔잔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건널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손 잡아주시고 함께 올려주시는 주님의 동행 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가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춘 지음 / 264면 / 11,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감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www.q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

복음전파, SNS 통해 효율적으로

뉴미디어시대 스마트 목회전략 세미나 성황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스마트 목회전략 세미나가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지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뉴미디어시대를 맞아 회원교회들에게 미디어 목회전략을 소개하고 교회환경에 맞는 스마트폰 목회 및 선교 IT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세미나는 100여명의 남가주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모여 들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여운영 목사(미주복음방송 뉴미디어 실장), 피터김 목사(CTS기독교방송 IT미션 디렉

터), 김종철 집사(CTS기독교방송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각각 뉴미디어 시대 교회의 역할, 뉴미디어시대 스마트목회전략, 클라우드 서비스 및 앱제작 데모, 클라우드 앱운용 전략에 대해 강의했다.

여운영 목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라디오나 TV, 신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면 지금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서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개방의 시대인데 뉴미디어를 모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 목회라 할 수 있다. 목회자들이 목회에 있어서 유용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배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회협의회가 주최한 뉴미디어시대 스마트 목회전략세미나에서 김종철 집사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장신대학교에서 열린 '그리스도인이여 과학을 품어라'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 공개강좌에서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우종학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미주장신대 우종학 박사초청 특별공개강좌

'그리스도인이여 과학을 품어라'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인 우종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특강을 '그리스도인이여 과학을 품어라'라는 주제로 3일 오전 11시 본교 체플실에서 특별공개강좌를 개최했다.

우종학 박사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과학을 품고 수용할 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박사는 "창조과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을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하는 진화론은 하나님 없이 저절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진화주의이다. 그러나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생물의 종이 나오게 된 진화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는 138억년이라 이야기한다. 138억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자연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무신론의 관점으로 생각돼야 하는가? 결코 그

렇지 않다. 자연세계가 흐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자연법칙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연현상 속에서 자연법칙들은 동일하게 우주의 시공간을 따르고 있다. 신앙인들은 그 배후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함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창조과학자들의 비판을 하고 있는 연대측정법이 있다. 창조과학자들은 연대측정법으로 사용되는 탄소동위원소측정법에 대해 부정확하다는 견해를 펼친다. 그러나 탄소동위원소측정법은 매우 정확한 방법이다. 단지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여러 종합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며 그중 하나가 탄소동위원소측정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미주장신대 학생들이 참석해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했으며 강의가 끝난 후 질의문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동문교회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뤄가자"

동문교회가 지난 6일 오후 3시 제 5대 김상호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상호 목사는 "목회는 하나님 이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이뤄가자"고 말했다.

본 교회 임시 당회장 차병학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취임감사예배는 박승수 장로 기도, 민병창 장로 성경봉독에 이어 김성일 목사(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노회장)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성일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빌3:12-21)이란 제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 칭함을 받는가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부흥이란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킨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돼야 한다. 이제 과거를 접어두고 온 성도들의 삶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증거되는 삶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권려했다. 이어 임시 당회장 차병학 목사는 예식사와 취임패 증정을 하며 김상호 목사가 동문교회 제 5대 담임목사가 되었음으로 공포했다.

한편 김원인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는 "목사는 개인예배에 성실해야 하며 예수님처럼 성도를 섬기되 지혜롭게 맞춤형 섬김을 통해 성도와 목회자가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라"고 취임감사회 담임목사에게 권려했으며 박은중 목사(예일교회)는 성도들을 향해 "이 시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착한 목사가 필요한 시대다. 김



동문교회 담임목사 취임식에서 김상호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상호 목사는 착한 목사임으로 성도들도 착하게 대해주기 바란다"고 권려했다.

이어 김동수 목사(목회자성경연구원)는 "오래 함께 살아가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담임목사 취임을 축하하며 정선에 전도사가 축가를 유진, 최상열, 정은실 씨가 피아노 3중주를 연주해 축하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김용인 선교사(메시칼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제2회 기윤실 사회봉사상 시상자 확정

민족학교, 부모님선교회, 빛나라선교회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홍진관, 허성규)는 제2회 기윤실 사회봉사상 시상식을 오는 17일(목) 오후 7시 제14회 건강교회포럼 행사 시간에 갖는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해 온 LA기윤실은 지역 사회봉사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한 'LA기윤실 사회봉사상'은 총 12개의 단체와 교회가 신청했다. 그 가운데 엄격하고

서부교회게 게시판



제14회 LA기윤실 건강교회포럼

LA기윤실(공동대표 홍진관, 허성규)는 제14회 LA기윤실 건강교회 포럼을 '한인교회의 사회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7일(목)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강당(3130 Wilshire Bl.)에서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배현찬 목사(워싱턴DC 주 예수교회 담임)가 하며 김동일 목사(은혜의방주교회 담임)와 유용석 장로(LA기윤실)가 패널로 나서 패널토론을 하게 된다.

▲문의: (213)387-1207

GO&D교회 설립예배

GO&D교회(GO&Disciple Church 담임 정병규 목사 3021 Blume Dr, Rissmoor, CA) 설립예배가 13일(주일) 오후3시에 개최된다.

▲문의: (714)745-8044

나성서울코랄 제69회 정기연주회

나성서울코랄(지휘 진정우 박사)은 제69회 정기연주회를 13일(주) 저녁 7시30분 월서이벨 극장에서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펠릭스 멘델스존의 '찬양의 송가'를 연주하게 된다. 입장료는 S석 40달러, 일반석 20달러

▲문의: (909)821-2488, (562)858-5200, (323)823-3187



지난해 찬양제에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은혜한인교회 단원들

오렌지카운티교회연합 제33회 성기합창제

20일 오후 6시30분 베델한인교회에서

OC기독교전도회 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가 주최하는 제 33회 OC 교회연합 성기합창제 오는 20일 오후 6시30분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열린다.

나침반교회를 비롯한 교회 및 단체 합창단 10여단체가 참석하는 이번 음악회는 손인식 목사의 은퇴를 기념하는 뜻 깊은 합창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합창제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송규식 목사는 "갈수록 개 교회 주교의 흠여지는 시대흐름에 반해 교회가 연합하고 세속문화에 약화되어져가는 기독교문화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 정서에 맞는 노래문화(합창)를 다시 세워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것은 (714)699-0210로 문의하면 된다.

(정라: 이성자 기자)

부모님선교회는 양로원과 가정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섬김과 봉사, 예배와 위로 사역을 17년째 해오고 있는 단체다. 빛나라선교교회는 미주의 유일한 탈북자 교회로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에 필요한 법률, 의료, 직장, 거주 등의 봉사와 지원을 감당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사회봉사상장과 함께 1,000달러의 시상금을 받게 된다. 기윤실 관계자는 이 상을 통해 한인교회와 사회에 좋은 모범사례들이 알려져 사회봉사의 실천이 더욱 퍼져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LA기윤실)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건물 렌트

뉴저지 릿지필드팍 한인타운에 있는
건물을 렌트나 매매를 합니다
- 교회도 가능합니다 -

주차장: 100대
사이즈: 11,000 SQ
토 지: 2 에이커

렌트, 매매 옵션

연락처: 646)286-9336 (Rich)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목회자 피로도, 중형교회 '최고'

(度) 교인 500-1000명... 업무 강도 높고, 많은 성도 상대

국내 중형교회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피로도가 특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장신대 대학원 황영제씨의 석사논문 '한국목회자의 탈진 원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인 수 501-1000명인 중형교회 목회자들의 피로도가 1.89점으로, 1000명 이상(1.70), 101-500명(1.51), 100명 이하(1.50)보다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서울·경기지역 목회자 200명에게 15개의 질문을 하고 답변으로 각 1-3점씩 점수를 매기게 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진

행했다. 3점에 가까울수록 피로도가 높을 것이다.

논문은 "대형교회는 부교역자 수도 많고 업무 분배가 원활한 반면 중형교회 목회자들은 업무 강도가 높고,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분별로는 부목사가 1.73점으로 전도사(1.63)와 담임목사(1.27)에 비해 피로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방 목회자들의 피로도가 1.77점으로 서울(1.57)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목회자가 1.76

점으로 30대(1.62점), 40대(1.55점)보다 높았다. 특히 50대 목회자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고, 다른 교역자나 성도와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꺼리는 '비인격화' 항목이 2.33점으로 30(1.47점)대와 40(1.42점)대 목회자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피로도가 계속 높아질 경우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안식년 등을 통한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20번째 목회를 하고 있는 박모(54) 목사는 "

성도들은 쉬지 않고 일하느라 휴가를 못가는 경우도 있는데 현금으로 휴가비를 받아 휴식을 취한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안식년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도 좋지 않아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익 장신대 목회상담학 교수는 "목회자는 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면서 "탈진하면 오히려 목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교단이나 신학교 차원에서 목회자 정담 상담소를 만들어 목회자들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치유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반론도 실린다"

교계 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 조찬간담회

한국교계 교과서·동성애동성혼특별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영진, 공동대표 황우여·김명규·전용태) 관 3층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해훈 이학재 의원, 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정·교계 인사 20여명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동성애옹호도덕교과서와 한국사교과서 기독교사과서 부분의 수정, 종교교육권 보장에 힘을 쏟고 있는 교계 행보의 일환이다.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교계의 예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유기홍(국회 교육문화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해당 출판사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에 대한 반론 부분을 게재할 것"이라고 교육부 관계자에게 구두로 답변 받았다"고 밝혔다.

교계는 현행 종교교육도덕 교과서에 실린 내용 중 동성애자는 에이즈와 무관하다, 동성애가 의학적으로 정상이라는 부분이 잘못됐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 의원은 또 한국사교과서에 기독교 관련 서술부분이 타종교에 비해 미흡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 교계의 의견에 대해 "교육부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에서 아직 공문접수를 받지 않았다며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오

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교육부에 검토를 공식 요청할 것이다. 만약 그 결과가 미흡하면 타종교에 비교해 공정하게 기술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 이해훈 의원은 "하늘나라를 흔들고 훼방하는 어떤 세력에도 맞서 싸워야 한다"며 "기독교 정치인으로서 교계와 함께 단단히 하늘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학재(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은 "오늘 아침 좋은 의견을 들은 것 같다"며 "청취한 의견들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진 대책위 상임대표는 간담회 취지설명에서 "한국교회가 근대화를 비롯, 이 나라와 민족에 이바지한 것이 많은데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교육부 등은 교회가 지향하는 선한 뜻과 헌신적인 노력을 저버리지 말고 공정하게 교과서를 집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다음 주에 서남부 교육부 장관과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전국교회 순회예배를 드리는 등 잘못된 교과서 수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서화운동본부, 의회선교연합 등이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다.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 포럼 열린다

미래목회포럼 '오늘의 교회개혁과 사회변혁을 위하여'

미래목회포럼은 오는 1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오늘의 교회개혁과 사회변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 포럼을 연다.

포럼에는 장신대 임학교 교수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한 16세기 종교개혁'을 주제로 스위스 취리히 종교개혁이 시작된 배경과 교회개혁과 함께 추진한 사회변혁,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사회윤리에 대해 발표한다. 서원대 김성건 교수는 '종교개혁과 종교의 사회적 역할'의 발제를 통해 한국 종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개신교의 사회적 기능 분석 및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고신대 이상구 부총장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갱신'을 주제로 한국교회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개혁 안을 발표한다.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와 연세대 정종훈 교수는 논찬자로 참여한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오정호 목사는 "종교개혁의 달을 맞아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되살리고, 한국 교회 안에 개혁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1517년 10월31일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한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것을 기념해 개신교에서는 교회력에 따라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다.

한편 미래목회포럼은 지난해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아 '대형 교회 목회 대물림', '무자격 목사안수 남발', '교단총회의 도덕성 상실 행위', '연합기관의 빛나간 이단논쟁', '두 개의 찬송가 발행 문제' 등을 한국교회 5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미래목회포럼 이사장 정성진 목사는 "예장통합과 기장이 이번 총회에서 목회대물림 방지법안을 신설하는 등 한국교회에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미래목회포럼은 앞으로도 개혁신앙, 개혁교회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잃어버린 제자도부터 회복하자"

아시아선교협 제11차 국제선교대회

프로젝트성 물량주의 선교에 대한 반성이 제기됐다. 교회단 건국이나 지역 의 자금이 투입되는 기획성 사업보다 '제자도(discipleship)'가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것이다. 제자도란 희생과 섬김, 자기 내어놓

음 등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의미한다.

아시아선교협의회(대표 박기호 박사)는 지난 7일 저녁 인천시 송도 한국뉴욕주립대에서 '제11차 국제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선교

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제자도를 따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1세기 선교에서의 제자도'를 주제로 46개국 250여명의 선교사와 단체 지도자들은 세계 선교가 직면한 도전을 재검토하고 진정한 제자도를 바탕으로 한 협력 선교 방안을 찾는 데 머리를 맞댔다.

8일 오전 주제 강연에 나선 김규동 요한동경교회 목사는 지난 25년간의 일본 선교 경험을 들려줬다. 김

목사는 "일본인들은 한국인보다 네 배나 더 예수 믿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신도(神道)이즘으로 대 표되는 국가주의와 불교,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회 속에서 예수의 제자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풀러신학교 타문화연구소 스코트 선퀴스트 학장은 베드로전서 강해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선택되고 흠여지며 사랑으로 튀어

나가는(splattered) 유랑민 같다"며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11일까지 계속되는 선교대회는 '10/40창(window)'을 주창한 루이스 부시 박사를 비롯해 SEED선교회 이원석 박사, 전 SIM 국제 부총재 엘던 포터 박사, 이스라엘성경대학 노암 헨드렌 교수 등 30명이 강사로 나선다. 9일 저녁에는 이영훈 여의

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진정한 제자도의 영성'을 주제로 설교한다.

아시아선교협의회는 1973년 원로 선교학자인 조동진 박사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 교회가 하자'는 취지로 인도네시아와 인도, 필리핀 등 14개국 대표가 회원으로 참여했다. 협의회는 선교 연구와 지도자 개발을 위한 훈련기관으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을 설립해 국내외의 선교 지도자를 배출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담임목사: 이재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odyk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다독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32)310-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일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규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y.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절기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pvac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9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ccdc.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06)522-0891, 267-471-7777 Fax. (610)222-068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동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앨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전 1:45 E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찬양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대학원예배: 오후 1:30 목회대학원: 한미(한): 오전 11시 유지, 유진(토):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살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89(백성경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예배: 오전 6:30 Tel. (206)522-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iospvision21.org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ias.org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iospvision21.org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어)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74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한)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kccaz.org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6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l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k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iospvision21.org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6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선교 편지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전히 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선교팀들이 방문한 7월과 8월 초순에는 비교적 날씨가 좋았는데, 8월 후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비가 와서 산골 농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계속되는 우기로 농사가 흉작이 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건기가 되면 물이 없어서 고통 받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연료비 상승 내 이를 겪어 못하여 정돈 집과 토지를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니다. 이자율이 참으로 높습니다 (15-45%/년). 가진 자들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경제시스템입니다. 환경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착취 속에서 신음을 하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는 오는 11월 24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미 예비선거를 마치고 각 당의 후보들이 선출되어 현재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진정 온두라스를 위하여 헌신을 다하는 대통령 및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선교의 계절! 중미에 위치한 나라들은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여러 단기선교팀들이 사역을 방문하여 섬겨주십니다. 저의 렌카 마을에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1교회씩 오셔서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교향악단의 아름다운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선교"는 전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선교사와 교회와 선교단체가 아름답게

연주하며 그 완성을 이루어간다고 믿습니다. 가끔 불협화음을 이루기도 하지만 참여한 모든 분들의 아름다운 화음의 조화는 2013년 한여름 밤 이곳 산골 렌카 마을에서도 아름답고 감미로운 하나님의 교향악단의 선율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기선교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올해 참여한 한분 한분들을 기억합니다.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약장의 역할을 감당한 분들, 바이올린, 첼로, 류바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 트럼펫, 크라리넷, 프렌치 혼, 갈기 아름다운 음을 내신 분들. 한구석에서 이름 모를 악기들을 연주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며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관중 속에 앉아 환호를 한 군중(fan)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즉 가장 행복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감금없이, 후회없이, 후회없이"(William Borden) 살아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간을 보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본부사역(2006)을 하면서 시작된 마이너스 즉 빚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본부에서 "빚을 내서 사역을 하지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 실제 지난 5개월 동안 사역비 및 생활비가 삭감되어, 심지어 가족의 생활은 물론 사역을 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동역자들의 생활비를, 그리고 진행되는 교회와 학교 사역(여)에 재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빚(?)을 내어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23년) 사역하면서 사역 즉 미니스트리(ministry)는 미니스트리(money+ministry)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선교사에게 엄정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God's work done in God's way will never lack God's supply"의 말을 믿기에 저의 사역

을 다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니다.

지난 8월 넷째 희건이가 University of Illinois(Urbana Champaign)에 입학하면서 학교를 방문하는 길에 시카고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몇 교회들과 동역자님들의 헌물을 통하여 만난 적자로 이어지던 선교회 재정이 이제 흑자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역하는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 많은 감사한 일들을 제가 받습니다. 시카고 장학재단에서 올해도 다섯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주셨는데, 올해는 첫염소를 구하여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베들레헴교회에서 단기선교로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선물로 주신 돼지 33마리 가운데 첫 번째 6마리를 아자꾸알과 성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좋은 종자들을 구하여 여러 성도들의 삶에 밀착으로 삶을 향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8월, 9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역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축복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빛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이버타 교회 건축(카나다 한사랑교회 후원): 흠뻑들, 기초를 위한 자재, 목재들이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기가 마무리되는 시기(10월 말)에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성당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개척 및 성장: 아자꾸알과 교회, 몽케카구야교회, 셀름교회, 부에블로 비에호 교회, 세이버타 교회, 에스페란자교회, 몬테베르데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7월 6일 까까오(강민호 선교사님 사역

지)에서 6명, 7월 27일 몽케카구야교회 성도 16명의 세례식을 거행 하였습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4일 결혼세미나 이후에 "말씀과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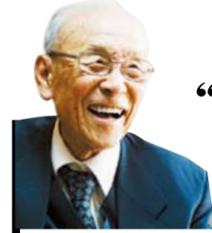
-단기선교: 맨하탄선교교회(5월), 아틀란타노리교회(7월), 와싱턴중앙장로교회 JG 학생들(7월), 아틀란타실로암장로교회(7월), 시카고베들레헴교회(8월).

-성경목상 세미나: 시카고 베들레헴교회 이상규 목사님, 양의경 전도사님을 모시고 아자꾸알과와 산페드로술라에서 가졌습니다. 쉽지 않는 사역이지만 작은 목사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 싹을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학교(아자꾸알과, 몽케카구야): 새학기가 7월 8일부터 시작이 되어 7월 한달간 영어캠프 및 음악캠프를 집중적(KCPC JG 학생들과 아틀란타실로암장로교회 팀)으로 실시한 후 정규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10월 3일에 종강하게 되며, 10월 방학 중에는 영어, 컴퓨터, 그리고 기술 및 미술 등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겨자씨학교 아이들이 시구아테페케복음병원 부속간호학교에 진학을 위하여 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으며, 그리고 몇 아이들이 도시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on Cristo sembrando hoy, y cosecharas mañana"

-장학금 전달 및 복돼지 전달: 시카고장학재단에서 올해도 다섯 아이들(Fatima, Fred, Lendy, Kenya, Lesly)에게 염소를, 시카고 베들레헴교회에서 선물로 주신 돼지 33마리 가운데 첫 번째 6마리를 아자꾸알과 성도들(홀리아, 빅토리아, 골잘로, 오네이다, 산토스, 놀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온두라스 장세균 선교사 드림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방지일 칼럼 (II) "본대로 들은 대로"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

남의 눈에 들어가는 물을 내 눈에 몰래 대는 일, 내 이익으로 남의 손해를 돌보지 않는 데 쓰이는 말이다. 어떤 일을 작정하려 할 때 벌써 선입관념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순통하게 됨을 보아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기를 다 선택한다. 목사들도 전부라고는 못하지만 많이들 도미하기를 원한다. 여행 차 왔다가 돌아가지 않으므로 말성이 되기도 하였다. 목사의 비자는 때론 받기 힘든 이유가 거기 있음이다. 어떤 목사님은 처가댁이 미국에 이민왔기에 가족은 벌써 보았으나 목사 자신은 이민목회를 망설여져도 하여 그냥 본국에 있었으나 가족이 다 왔으니 자신도 비자를 신청하였다. 그때에 어떤 교회에서의 초청도 있어 갈 마음도 있고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가 되면 가겠다는 대답을 하였고 어려운 때인데도 비자가 무난히 나왔다. 크게 감격스러워 아마 하나님께서 미국 가라시라는 보다 하고 미국에 왔노라는 말을 들었다. 아전인수격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목회를 본국에서 할까 이민목회를 할까를 전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보다 가족도 있으니 미국을 선택하여 오려던 차인데 비자가 어렵다 함을 감안하면서 신청해보았더니 예상외로 된지가 이 일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 판정하는 이야기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벌써 마음으로 소원하고 가족들이 합의하여 혼자 있다가 길을 찾던 차에 온 것인데 주관이 앞선 것이 사실이고 가족들이 기다리기도 하는데 비자가 되면 청하는 교회에 가겠다고 나 자신의 주관 판단이 앞세워졌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기 가져다 맞추는 일은 크게 곤란할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묻는 일에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는다. 내 뜻에 맞게 되기를 먼저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은 무시해버리고 전적 순종하는데 있음이다.

조건이 좋은 곳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자기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식이 되게 되니 이는 망령된 처사라 할 것이다. 목사가 이런 선입관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식이라면 그 교인도 그 이상의 지능은 가능할 수 없으니 결국 인본주의, 소위 인위적 신앙생활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세 명이 있다. 첫째는 양심이다. 둘째는 성경이다. 셋째는 기도이다. 양심대로라고 단언할 수도 있으나 무던 양심, 확신 맞은 양심도 없지 않으니 그런 양심에 의존함은 크게 위험하다. 그 다음 성경말씀이다. 그러기에 성경을 깊이 보아야 한다. 성경에 익숙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자기 비유에 맞는 구절로 하나님의 지시라고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기도는 양심을 가는 수돌이라 기도하는 사람의 양심은 맑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리하여 특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말씀을 바로 찾게 된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성경의 지적함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기에 양심을 가는 기도, 성경 말씀을 바로 밝혀주는 기도야 바른 지침이 된다. 기도는 최고의 지침이라 할 것이다. 이런 경로 없이 선입관의 주재 하에 하나님의 뜻이라 단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심산이다. 크게 삼갈 일이다. 이러한 일이 흔히 보이고 들리게 여기 한번 쯤 넘어가려고 함이다.

목사의 착오는 그 개인의 착오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을 오도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할 때 크게 두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자신의 주관을 관철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한다면 아집에 사는 인간이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나님의 역군이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면 무신론자라 하겠으니 이 어찌 두려운 일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소위 신앙을 이용하려 기도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려 한다면 독재정권의 독재자와 다름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통으로 받아 넘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자기 시녀로 쓰는 격이니 얼마나 큰 죄임을 알고 삼가 경계에 경계를 더할 것이다. 아전인수격이라는 말조차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니 거듭 경계를 요한다. 절대 순종이 신앙인으로 더욱 그의 부름 받은 역군으로서 할 일이라 할 것이다.

(1996년, 1권)

아이티

아이티는 오늘 개혁을 했습니다. 원래는 9월 초에 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난 6월 아이티를 지나간 허리케인 Chantal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이 미뤄지고 채점도 미뤄졌었습니다.

게다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개혁을 연기해달라고 했고, 각급 학교에 제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 제때 공급이 안되고 있어서 한 달을 늦춰 개혁을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서 안타깝다 못해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니다.

아무도 되는 일이 없었지만 학교 개교도 한 달이나 늦춰서 적당히 하는 현실이 화가 날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라도 개혁을 해서 즐겁습니다.

교육을 위한 지원도 절실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렵습니다. 지난 8월 방문했을 때 나는 문구류들이 지금쯤은 다 닳아 없어졌을 생각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면서 변화되리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헬핑 핸드에서는 아이티 고아

들과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에게 축구를 통해 건전한 심성을 키우는 The Pitch와 함께 아이티에 축구공 보내기를 합니다. 이 일은 House of Hope 고아원을 운영하는 Amer-Haitian Bon Zami에서 주관합니다. 또한 학용품 및 학비 지원을 위한 후원도 받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고 꾸준히 교육을 받아

서 아이티의 인재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조항석 목사 드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562)691-0691 /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org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동맹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lgusa@yahoo.com / www.lalgo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Anaheim, CA 9280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수-금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사백 기도회: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 5:30(월-금), 6:30(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 6부예배: 오전 6:00(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주일 3부예배: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30 EM: 대안학: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5:00(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 예배: 오후 7:30 주일 7부 예배: 오후 11:1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 기도회: 오전 6:00 금요 예배: 저녁 7:30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등산성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아침예배: 오전 9:30 3부 아침예배: 오전 11:00 4부 아침예배: 오후 12:30(영성) 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 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 이 예배: 오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금)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미주영공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2:30(영성)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안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월-금)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매일)	얼바인침체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5: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저녁 7:3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안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토요예배: 오전 10:00(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4부 예배: 오전 4:00 주일 5부 예배: 오전 6:00(월-토)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주일 3부예배: 오전 5:30(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영어예배: 오전 10:00 토요일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선교지 소식

무슬림, 기독교인 박해 700년래 최악

교회를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중동 등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들이 추출될 위기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2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페샤와르에서는 주일 예배를 끝내고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노리고 교회 앞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80명이 숨지고 140여명이 다쳤다. 이곳에서는 29일에도 차량폭탄이 터져 어린이 6명을 포함한 31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AP 뉴스는 1일 "무슬림 청년들이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인들의 집을 공격한 사건이 남부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서도 벌어졌다"며 "이슬라마바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자 복면을 쓴 사람들이 물러와 마구 때리고 달아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계 파키스탄 기독교인 협회인 윌슨 초드리 회장은 "페샤와르에서 자살폭탄으로 숨진 사람들의 장기가 거래되고 있다는 소문까지 확산되면서 기독교인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기독교 협회회는 정부를 향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파키스탄 크리스천 포스트는 전했다.

미국 PBS는 "서구의 식민지배 경험 때문에 미국과 서구를 향한

분노가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키스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자처한 탈레반은 미국의 제국주의를 규탄하기 위해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이용했다. 지난달 케냐 나이로비의 쇼핑몰에서 인질극을 벌인 이슬람 무장세력 알샤바브도 소말리아에서 서구세력을 몰아낸다는 구실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전력이 있다. 시리아와 이집트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무장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이집트에서는 무르시 전 대통령의 추종세력인 무슬림형제단 소속 청년들이 100여곳의 교회와 기독교인의 상점을 공격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종교자유센터 니나 쉐아 소장은 "2011년 이후 중동에서 정치적 자유가 확산된 이후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오래된 교회와 사원, 기독교 학교와 고아원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사무실까지 계획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동에 남아 있던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공격은 지난 700년 내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다. 영국 역사학자 톰 홀랜드는 "현재 중동에 확산되고 있는 증오와 공포는 유럽이 30년간 전쟁에 휩싸여 있던 당시를 연상케 한다"며 "기독교가 태어난 발생지에서 기독교인들이 추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미얀마 종교 갈등 확산, 민주화개혁 걸림돌 우려

미얀마에서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종교 폭력이 확산되고 있어 걸음마 단계인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 경제 개방을 좌초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서북부 라카인주에서 1일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에 폭력 사태가 재발, 이슬람교도 노인 1명이 숨지고, 불교도 남성 4명이 다쳤다. 이 사태는 테인 세인 대통령이 이슬람교도와 불교도에게 종교폭력 중단과 평화를 촉구하기 위해 라카인 주를 방문한 가운데 발생했다.

이슬람교도와 불교도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높은 라카인 주에 테인 세인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지난 2011년 취임 후 처음이다. 그는 1일부터 이틀동안 두 종교 지도자들과 라카인 주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종교간 화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번 폭력 사태는 라카인 주 탄웨 등 3개 마을에서 발생했으며, 불교도 폭도 수백명이 이슬람교도 집과 가게 수십 채에 불을 질렀다. 이 사태는 지난 28일 밤 탄웨 마을에서 불교도 남성 1명이 이슬람교도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하려다가 이슬람교도 가게 주인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시작됐다.

양군에서 북서쪽으로 270km 가량 떨어진 탄웨 마을에서는 약 3개월 전에도 이슬람교도가 불교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퍼져 이슬람교도 가옥 2채가 불에 탔다. 경찰이 1일 폭도들을 일단 해산시켰으나 폭력 사태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라카인주에서는 지난해 주류 주민인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 사이에 유혈충돌이 발생해 200여명이 숨지고, 로힝야족 14만여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이후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폭력은 울 들어 미얀마 중부, 동부, 동북부 지방

으로 확산됐다.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사이의 폭력은 두 종교 사이에 잠재해있던 뿌리깊은 반목과 갈등이 2011년 테인 세인 대통령 취임 후 시작된 민주화 개혁으로 사회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표면화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사회문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얀마는 버마족이 70% 정도로 다수이고 산족, 카렌족, 카친족 등 130여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동남아에서 민족구성이 가장 복잡한 나라다. 종교적으로는 불교도가 89%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슬람교 4%, 기독교 4% 등이다.

이 때문에 정부군과 소수민족 반군간 내전이 수십년째 계속되는 등 민족간, 종교간 갈등이 심각하며 민족간, 종교간 화해가 미얀마 민주화, 경제 발전의 중대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 폭력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나 적극적인 노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가 종교폭력 주동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폭동을 적극적으로 진압하지 않음으로써 종교폭력을 암암리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군부가 사회 통제를 위한 발미를 확보하기 위해 종교폭력과 혼란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도 종교폭력을 중단시키거나 중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오는 2015년 대선을 앞둔 가운데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불교도들을 거슬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종교분쟁이 민주화 개혁을 좌초시킬 정도로 확산할 것인지, 테인 세인 대통령 정부가 종교폭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미얀마 종교 갈등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케냐 몸바사에서 이슬람 성직자 피살... 긴장 고조

케냐 항구도시 몸바사에서 이슬람 성직자가 무장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피살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AFP 통신과 BBC에 따르면 3일 밤 이슬람 성직자 이브라함 아마르가 탄 차에 무장괴한들이 접근해 총기를 난사해 아마르가 숨졌다고 경찰이 4일 밝혔다. 아마르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다른 4명 중 3명도 숨졌다. 아마르는 이슬람교 회당에서 설교한 뒤 자택으로 복귀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몸바사에서 이슬람 성직자 아부드 로고 무함마드가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한 바 있다. 로고는 소말리아 이슬람반군단체 알샤바브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그는 알샤바브의 인력총원과 재정지원을 돕는 것으로 의심돼 미국과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

당시 일부 이슬람 신도들은 케냐 경찰이 로고를 사살한 것이라며 연일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에 수류탄이 투척돼 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로고 피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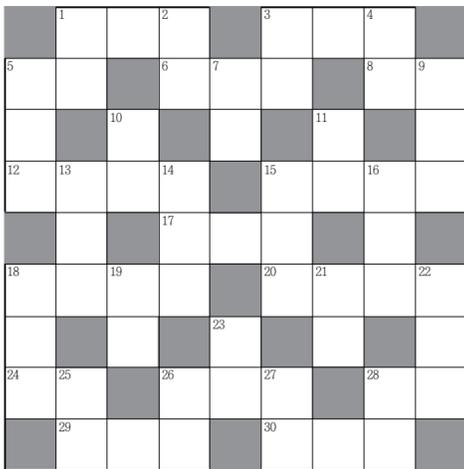
이번에 숨진 아마르는 로고의 후계자로 간주돼 왔다. 그는 로고와 같은 이슬람 회당에서 설교를 해왔다. 이날 일부 급진 이슬람 성직자는 경찰이 아마르를 처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런 주장을 부인했지만 작년과 같은 시위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21일 수도 나이로비의 웨스트 게이트 쇼핑몰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테러를 벌여 민간인 62명과 군인 5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데 이은 것이다. 쇼핑몰 테러 사건은 알샤바브가 저지른 것으로 주장했으며 또 다른 테러 공격을 경고한 바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14)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OOO이라 이름하고...(삼하5:9).
3. 수많은 것을 가리킴. 이만의 만배(계9:16).
5. 여호와께서 나를 눈OO 같이 지키시고(시17:8).
6.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의 고향(마27:56).
8. 뜻밖에 일어난 탈(수20:4).
12. 영당이 중간부분(삼하10:4).
15. 무화과로 만든 떡(창12:40).
17. 슬기로운 사람(신16:19).
18.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는 하나님의 넓은 품(삼상25:29).
20. 말기엘의 아들이다(대상7:31).
24. 웃어른께 안부의 말씀을 여쭙(출18:7).
26. 죽은 사람의 넋을 돌아오도록 부르는 사람(신18:11).
28. 심히 무섭게 으르고 위협함(롬16:23).
29. 나그네를 치르고 밤을 파는 그 집 주인(롬16:23).
30. 괴롭고 아픈 가운데 있음(눅16:23).

<세로 푸는 열쇠>

1. 많은 아들(신33:24)
2.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 놓았던 텐트(출26:1).
3. 아일인인데 다윗의 대신이다(삼하20:26).
4. 온갖 일. 모든 일(전11:5).

5. 한 겨레 가운데(갈1:14).
7. 성전 문지기의 한 사람으로 그가 세운 가족의 이름(대상9:17).
9. 복부만 팽팽 붓고 내부는 비어있는 창충의 하나(눅14:2).
10. 여사사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울 때 납달리와 스블론은 이곳에 모여 바락의 지휘로 진격 대파하였다(삿4:6).
11. 어떤 사물의 영향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착하게 된(고후6:6).
13. 같은 이름.
14. 몸을 펴고 팔 다리를 뻗은 짓(암6:4).
15.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음(롬1:31).
16. 말의 어휘가 그 의미, 기능, 형태를 과거의 것으로 표현된 품사.
18. 예루살렘 복편 문(대하33:14).
19. 싸우는 짓(민31:3).
21. 아셀의 성읍인데 레위지파 게르손 자손에게 양역(수19:28).
22. 아굽의 아홉째 아들(창30:18).
23. 육체를 떠나서도 존재하며, 인간 활동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실체. 넋(삿5:21).
25. 편안하게 쉬(막16:2).
26. 사람을 부름(행14:19).
27. 썩과의 새. 산야에 사는데 메추라기와 비슷(렘17:11).
28. 하늘(사8:8).

십자말 정답



모나리자

스킨 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정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하	\$11.99	UP TO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족, 카페트, 밍크

FREE DELIVERY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P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사명 가꾸기(2)

사명이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한다. 신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요즘엔 너무 많아 마치 도매상의 상품보다 가치와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상 교회마다 적임자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참된 사명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을 집필한 저자 허준이아가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현대 목회자들에게 좋은 자극과 도전 주는 드라마입니다. 그는 어려운 서자의 신분으로 태어나 한때는 방탕한 생활을 하였으나 그의 멘토가 되는 유의태를 만나 다시 의사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나 어려움에 빠졌어도 오히려 기회를 삼아 일어나 마침내 여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때로는 가정을 뒤로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한때는 반항을 하기도 하였으나 자기 아버지

그런가하면 목회자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조그마한 진실이 목회자에게 보여진다면 그는 존경을 받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상급제도가 생겨나기도 되었습니다. 과거엔 이런 행동은 목회자로서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목회자를 찾기 어려워진 이유로 조그마한 덕망도 높게 평가하여 상급을 내려야 하는 시대가 된 셈이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믿음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참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를 찾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다니엘을 한번 살펴볼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청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불로부터 더럽히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친구들의 모함에 걸려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도 다른 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니다. 예전과 똑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으로 현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점검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사모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로 사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역하던 도중 어떻게 변해가는 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목회에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유행에 쫓기고 문화에 쫓기고 상식에 쫓기고 변천되는 사회의 풍조에 휘말리게 되다보면 정말 신앙의 힘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대세를 위해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용납해주다보면 정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수없이 싸고 들어오는 유혹 물리치도록 남편 도와와 사회풍조 휘말려 정의 외면하면 신앙의 힘도 잃어

의 진정된 충성을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게 되자 아버지를 돕게 됩니다.

필자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목회자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목회자들의 고민거리인 가정의 문제를 윤오히려 보면 어느덧 가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을 소홀히 하여 사모들을 힘들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는 어디까지나 부르신 이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곁에 있는 사모들이 정중한 태도로 내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허준에게는 실력을 인정받아 많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도 하였습니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스승의 교훈을 기억하며 유혹을 물리쳤습니니다. 주위에서는 모두들 어리석은 자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니다.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도 그는 동의보감을 편찬하기 위해 명나라로 떠났습니니다. 그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 갔습니니다. 마침내 그가 편찬한 책 ‘동의보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온 세계에 크나큰 유익을 주는 책이 되었습니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영예를 뒤로 해야 합니다. 수없이 싸고 들어오는 유혹들을 물리치도록 남편 목사님을 도와와 할 것입니니다.

요즈음엔 핑신도들이 명 설교를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니다. 클릭만 하면 듣고 싶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니다. 차를 타고 멀리까지 애써 가지 않아도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문화현상은 성도들을 기형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니다.

옛날에는 설교만 잘하면 성도들이 몰려왔습니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니다. 설교의 내용과 행동과 인격이 따라 주어야 존경을 합니다. 조그마한 욕심떠어리라도 보일지라도 성도들은 겉서서 알아차리고 회의를 떠나기 까지 합니다. 더 이상은 그런 꼴을 보기 싫어서 컴에 앉아 차라리 명설교를 듣기도 하지요.

다니엘은 어쩌면 고지식한 사람이었습니니다. 말도 되지 않는 자세로 대항했습니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는 자세였습니니다. 그의 앞에 사자굴이라는 확실한 죽음이 있었어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마침내 사자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니다. 그때에도 자신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니다. 의지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결과 천사들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니다. 사자들의 입은 드디어 봉해졌고 따뜻한 침대가 사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던 것입니니다. 밖에서는 다리오왕의 슬픈 소리가 들려왔고 다니엘을 죽이려했던 이들의 쾌재가 울려왔으나 그것이 결코 다니엘을 두렵게 할 수 없었습니니다. 그는 오히려 사자굴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니다.

마침내 다리오왕은 다니엘을 향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요”라고 불렀습니니다. 그리고는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는 왕의 질문에 여유있는 목소리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어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라”(6:21).

다니엘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요 또 한 가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절릴 것이 없이 무죄하였기 때문입니니다. 마침내 다리오왕을 통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니다(단6:26).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현대판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권영국 목사(LA대흥장로교회)

월 참 포도나무, 예수님(요15:1-5)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묘사합니다(호10:1, 시80:8-10). 하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 변질된 이스라엘로 나타납니다. 이 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사5:2, 7),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종자가 이방의 악한 가지를 내는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렘2:21).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극상품이었던지, 시간이 갈수록 들포도를 생산해내는 악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만이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를 열어드리는 유일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화 노련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요15:1-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노련한 농부가 되어 주십니다. 포도나무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살피십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주변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리해주십니다. 포도나무는 넉넉 식물입니니다. 혼자 자라지 못하고 반드시 기둥이나 다른 가지에 기대어 자랍니다. 그래서 농부는 포도가지가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지지

대를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포도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과 기생충을 박멸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할 포도열매를 맺게 하시는 신앙의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를 생산해내는 모든 과정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노련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습니다.

수 깨끗해진 가지(요15:1-5)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주된 방법은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그릇된 습관을 버리게 하시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심으로 가치관을 바로 세우십니다. 신앙성장에 방해되는 주변을 정리해주심으로 믿음 좋은 강골로 만들어 주십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수확을 맺기 위해서는 제거의 작업(cleansing)은 필수적 입니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포도나무는 풍성해질

(productive)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니다.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말하며, 다윗은 오직 주의 말씀만이 청년을 깨끗케 할 수 있다 고백했습니니다(시119:9).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길은 말씀에 대한 순전한 집중이며, 말씀에 대한 단단한 삶에 적용 밖에는 없습니니다.

목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1(요15:4-5)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중 거함”입니니다(double abidings).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지치기와 여러 번의 손길을 거치는 시간을 보낸 후, 가지는 본 가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의 삶에 맺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본 가지에 충분히 거하는 시간이 흘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더디 달린다고 염려하거나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분명 열매는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니다. 열매는 내가 아닌 그분이 달리게 하기 때문입니니다.

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2(요15:4-5)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니다. 양산한 나뭇가지를 보며 포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지가 본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니다. 본 가지에 붙어 있는 이상, 시간이 걸릴 뿐 그 가지는 분명 열매를 내어 놓을 것입니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본 가지에 붙어 있는 이상 언제나 그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니다. 따라서 그 분 안에 거하려

는 것이 중요입니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 것인가? 라며 행동에 몰두하는 대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니다. 삶에 집중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니다.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 삶은 주님께 드릴 열매로 가득 해질 것입니니다.

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4-5)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경각심과 더불어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니다. 완벽한 계획, 훌륭한 인재, 든든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난 모든 시도는 아무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 어떤 시도 역

시 아무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가 약해지수록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강도는 더해갈 것입니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 자체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결국에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031)93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8491-5,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3길 북구 금양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19-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이교목)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00 (침례인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5:30 Tel. (02)2-2646-3183, (02)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복음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330-5
수령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곡동 137 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안양 제1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2-2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양곡동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9-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요신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2-2기 2동 146-7
뱅크비발리메이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30분) 금요기도회: 매일 새벽 7:00, 9:00 금요일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5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주일찬양예배: 저녁 9:00 714종교기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경건주의(Pietism)와 현대 선교에 대한 소고 (상)



박시경 목사 (그레이스신학교 교수)

필자가 신학도였던 1970년대 한국 신학계에서는 경건주의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갱신운동, 혹은 영적 부흥운동 정도로 가르쳤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세속주의 물결, 기독교 선교가 직면한 전반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는 경건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문제점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 소논문은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유럽의 경건주의(16-17세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의 종교 운동은 그 시대적 배경을 특징으로 하고서 발생했고 발달해왔다. 마르틴 루터

나눔과 성도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즉 신앙의 내면화를 주장했다. 이런 내면화된 신앙은 30년전쟁 등의 종교 갈등을 겪어온 개신교 교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도덕의 붕괴, 영성의 고갈이라는 도전을 직면하게 한 것이다.

어떤 갱신운동이든지 한 가지 공통점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즉, 초대교회 신앙,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시대를 막론하고 갱신운동의 핵심정신이다. 종교개혁 정신이 되새겨져가는 영성고갈의 상태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영국 국교에 반발한 청교도운동, 독일을 중심으로 종교개혁 정신을 계승한 경건주의가 두 축을 이루면서 영국과 대륙에서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져가는 개인과 교회를 깨우고 있었다. 물론 이런 갱신운동은 미국으로 건너가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를 중심으로 한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으로 이어졌다. 특별히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를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독일 경건주의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이식되었다.

독일 경건주의, 영국 청교도운동과 종교개혁정신 되살려 지나친 신앙의 개인화 불구 개인변화 통해 세계변화 목표

터(Martin Luther)가 주창한 종교개혁운동(1517)은 하나의 종교운동에서 그치지 않았고 전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발달한 개톨릭교회와 개신교 교회와의 갈등은 급기야는 30년 전쟁 (1618-1648)으로 비화되었고, 대부분의 중서부 유럽 국가들이 가담한 이 전쟁의 결과는 참담했다. 물론 그 전에도 신교 교 간의 무력충돌은 1555년까지 지속되었고, 이 갈등은 Augsburg 종교평화회의에서 드디어 종결되었다. 하지만 30년 전쟁의 결과는 유럽의 경제파탄, 전염병 창궐(페스트), 영성의 고갈이라는 최대의 위기를 만들어냈다(30년전쟁은 웨스트팔렌Westfalen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100여년이 지나면서 그 운동은 제도화 되어갔고 그 근본정신은 퇴색되어갔다. 개신교 내부에서도 여러 종파가 일어났고, 종파간 첨예한 교리적 갈등은 영성의 고갈을 더욱 가중시켰다.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 기독교 신앙이란 개인적 확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유일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도, 즉 개톨릭교회에 소속되는 것으로 구원은 보장받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종교개혁과 더불어 그 후에 나타난 다양한 개신교 종파들은 구원은 철저하게 하

조말 조선 땅에서 사역했던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들이 대부분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한국교회의 경건성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건주의의 영향은 아직도 한국 교회 내부에 건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경건주의 초기 당시이나 지금도 경건주의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지나친 신앙의 개인화, 개인적 경건만을 강조, 신비주의적 경향, 영광주의, 지나친 내세 지향적, 사회정의나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그 내용이다. 그러나 경건주의가 일어났던 그 시대의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환경을 감안할 때, 경건주의자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개인경건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 인물들의 저서와 주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저들은 인간존재(개인)의 변화를 통해 세계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갱신운동에는 몇몇 중심인물들이 선구자로 자리를 잡고 있기 마련이다. 경건주의 운동에도 '경건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와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 같은 인물들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를 중심으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 초기에 사람들은 경건주의자(Pietisten)이라는 경멸적인 말로 저들을 지칭했다.

1675년 슈페너가 쓴 '경건에의 요청'(Pia Desderia)에서 그는 여섯 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1. 소그룹 모임에서 진지하고 철저한 성경공부
2. 만인제사장설의 보편적 실행,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역할 강조
3. 교리의 철저한 생활화
4. 불신자에 대한 정보보다는 연민으로 대하며 열성적으로 섬길 것
5. 대학의 신학 강좌를 개편해서 개인 경건생활을 강조할 것
6. 공허한 수사학적인 설교보다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열정적인 설교를 할 것

슈페너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불붙는 경건성으로 넘치는' 프랑케가 라이프치히(Leipzig)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재학생은 물론이고 일반인들, 심지어 농부들과 노동자들과 여자들로 온집단, 그야말로 일대 센세이션을 낳고 사람들을 열광시켰다. 강의가 끝난 저들은 작은 소그룹을 결성해 기도와 성경공부로 자신들의 경건성을 이어갔다. 물론, 이런 운동들은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런 상황에서 저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저들을 향해 경멸적으로 Pietisten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프랑케의 강의는 라이프치히 대학 뿐 아니라 베를린(Berlin)과 할레(Halle) 대학에서도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평소 소경한 삶의 전형을 살아온 할레의 귀족, 진젠도르프(Nikolaus Ludwig Graf von Zinzendorf, 1700-1760) 백작도 프랑케의 강의와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고 독일 경건주의 제 2세대 지도자로 그 운동의 맥을 이어갔다.

후일 진젠도르프 백작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적 배경을 설명한다.

"내가 배운 기본적 교훈들은 나의 할머니에게서 온 것이다. 그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일은 완수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분은 구세주께서 관심을 가졌던 세상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졌다. 그 분은 루터파, 개혁파 등 종파간의 그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그 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분의 이웃들에 대한 문제들이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일"은 모라비아에 관한 사역이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2부에서, 모라비아 사역은 3부에서 저들이 세계 선교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다룬 예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이슬람 선교 전문가)



10월 첫 주, 캄보디아는 프춤벤(Puchum Ben)으로 공휴일이다. 프춤벤은 한국 식의 추석이다.

절에 가서 조상제사를 지내는 주간이다. 프춤벤 기간 동안 캄보디아 사람들은 일주일간 7개의 절을 다니며 조상들에게 음식을 바친다. 죽은 조상을 위해 공양을 잘하면 신이 행복을 가져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악신을 맞게 된다고 믿는다.

1. 알 샤바브의 폭격을 맞은 케냐

1)테러주범: 알 샤바브
9월 21일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 샤바브'가 케냐 나이로비의 웨스트케이트 쇼핑센터에 총격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최소 67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여전히 40여명은 실종상태이다. 해당 소



쇼핑몰에서 밖으로 대피하는 사람들(왼쪽) / 쇼핑몰 앞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오른쪽)

핑센터는 유대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외국인과 케냐 부유층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다.

금번 테러 사건을 주도한 알 샤바브는 소말리아를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바꾼다는 목표 아래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다. 조직원은 총 3,000-7,000명 정도이며 자폭테러와 동영상을 이용한 선전, 해외 조직원 모집 등 알카에다의 전술을 그대로 사용한다. 알카에다의 지부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수단 출신 목사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에서 테러 행위를 일삼고 있는 알카에다의 지부격인 알 샤바브의 운영 자금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 사우디는 자국 내에서는 알카에다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면서 나라 밖의 알카에다에 대해서는 자금을 제공하는 이중성을 드러낸다.

2)테러이유: 소말리아 침략을 지지한 케냐에 대한 보복

알 샤바브는 2011년 소말리아에 파견된 케냐에 대한 보복과 케냐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며 금번 테러를 감행했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케냐군이 소말리아 파병 기간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한다). 알 샤바브는 케

냐 군의 즉각 철군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 테러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다. 사실상 금번 쇼핑몰 테러가 있기 전에도 테러위험 경보가 작동됐었다.

3)"외국인들은 합법적 살해 대상"
AFP통신에 따르면 테러 직후 알 샤바브의 최고지도자인 아흐메디 압디 고다네는 급진 이슬람주의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나이로비 대량학살은 서방 국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또한 AP통신은 "케냐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합법적인 살해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알 샤바브가 보내온 이메일을 공개, 보도했다. 알 샤바브 측은 테러 공격 당시 무슬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꼼꼼한 과정을 거쳤고 그들의 공격 대상이 불신자와 침략자, 그리고 이들과 연합하는 배신자들임을 명확히 했다.

4)런던 지하철 테러범의 아내(White Widow)가 케냐 쇼핑몰 테러의 주범?

한때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화이트위도우(White Widow)' 영국 여성 서맨사 루스



웨이트의 개입 여부와 행방은 여전히 미연하다. 그녀는 15살에 이슬람으로 개종해 런던 지하철 자폭 테러범인 제메인 린지의 아내다. 21일 시작된 테러는 24일(현지시간) 케냐 보안군에 의해 모두 진압됐고 인터폴과 케냐 정부의 공조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5)진화하는 알카에다 vs 대책 없는 미국

알카에다는 케냐 쇼핑몰 테러 뿐 아니라 시리아 내전에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 시리아 반군에 합류한 수백 명의 유럽 젊은이들은 이슬람 성전주의에 빠진 자들이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젊은 백인들이 서구문명과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 몸짓으로 무기를 들고 각국으로 흩어져 기성 권위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직원을 얻은 알카에다와 세포 조직들은 중동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70여 개국에 산재하며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키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미국의 테러 억제능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인식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전방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경찰국가를 자처했던 미국과 서방은 빈 라덴의 망령에서 대책 없이 서 있다.

B 베테스다 대학교 총 동문회 홈커밍데이

Bethesda University of California

베테스다 대학교(Bethesda University)는 1976년도에 조용기 원로목사께서 세계를 주도할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꿈을 품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 위치한 베테스다 대학교는 발전을 거듭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의 BPPE의 인가는 물론, 미 연방정부 교육부 USDE 및 고등 교육 인가 기관인 CHEA 산하의 ABHE 및 TRACS의 인가를 받아 학사,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정규 대학교입니다.

하반기 총 동문회 행사안내

L.A 한인축제
베테스다 대학교 총동문회 장터 음식부스 운영 (장학기금마련)
9월 26일~9월29일 (4일간)
한인타운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국제공원

베테스다 대학교 홍보부스 (편,입학관련 문의 및 학교 안내)
9월26일~9월29일 (4일간)

베테스다 대학교 음악과 L.A 한인축제 초청 공연 (음악대학 찬양사역과 학생 팀)
9월 27일 금요일 (1:00pm)
야외특설무대

O.C한인축제
베테스다 대학교 총동문회 장터 음식부스 (장학기금마련)
10월 10일~10월13일 (4일간)
비치와 멜번 코너의 시온마켓 몰 파킹랏

콩히 목사 부흥성회
싱가폴 City Harvest Church
콩히 목사 초청
베테스다 대학교 부흥성회



일시: 2013년 10월 17일 (목) 6:50pm
장소: 베테스다 대학교 채플실(1F)
강사: 콩히목사(베테스다 대학교 공동이사장)
대상: 베테스다 대학교 재학생, 동문 및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누구나

체 육 대 회
베테스다 대학교 체육대회
각종 경기시험, B.B.Q., 푸짐한 경품추첨
일시: 10월19일 (토) 10:00am
장소: Ralph B Clark Regional Park (장소는 별도 될 수 있으니 전화문의바람)

CCM 콘테스트 및 동문회 총회
베테스다 CCM콘테스트
10월19일 (토) 5:00pm
베테스다 채플실(1F)

베테스다 대학교 총 동문회 총회 콘테스트에 이어 바로진행 베테스다 채플실(1F)

동문음악회 (Alumni Concert)
동문과 교수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Christmas Concert)

일시: 12월 18일(수) 7:30pm
장소: L.A 나성순복음교회
주소: 1750 N. Edgemont St, LA, CA90027